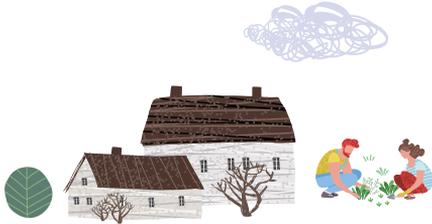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09-14



2021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함께 만드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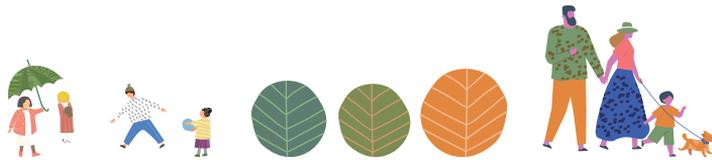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21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 마을만들기 분야

프롤로그 06

### 소득·체험 우수사례

금상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정문 두승산콩마을	10
은상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푸르내마을	16
동상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동자북마을	22
입선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모리마을	28
입선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호마을	34

### 문화·복지 우수사례

금상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	42
은상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달강마을	48
동상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송정그림책마을	54
입선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마을	60
입선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통산마을	66

### 경관·환경 우수사례

금상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호동골과 텃떼기마을	74
은상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마을	80
동상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마을	86
입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깨비마을	92
입선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산촌마을	98

## 농촌만들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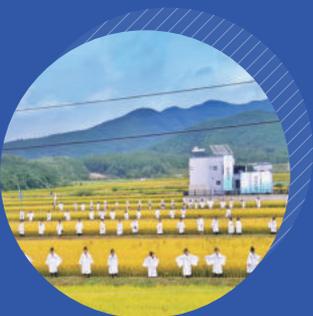
###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금상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티센터	106
은상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마을지기목공소	112
동상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마을호텔18번가	118
입선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영주소백산예술촌	124
입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30

###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금상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138
은상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144
동상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150
입선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156
입선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162

에필로그		168
------	--	-----



## 행복한 농촌 : 지속 가능성을 넘어 웰빙으로

총괄 심사위원장 최 수 명(전남대 명예교수)

이태 췌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더구나 행사가 개최되는 대전의 확산세가 위중한 상태에서, 그리고 대회 장소인 KT 인재개발원마저 확진자가 발생하여 폐쇄되는 어려움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삼중고를 딛고, 무사히 대회를 마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여 마을 주민, 행사를 준비하신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관계자, 평가 위원, 그리고 행사장의 뒤편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도우미 여러분 모두의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8돌의 연륜을 갖는 행복농촌 콘테스트는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 확립, 그리고 아이디어와 지역사회 혁신”이라는 새로운 농촌의 큰 방향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생적 거버넌스 구축이 지역사회 발전의 열쇠임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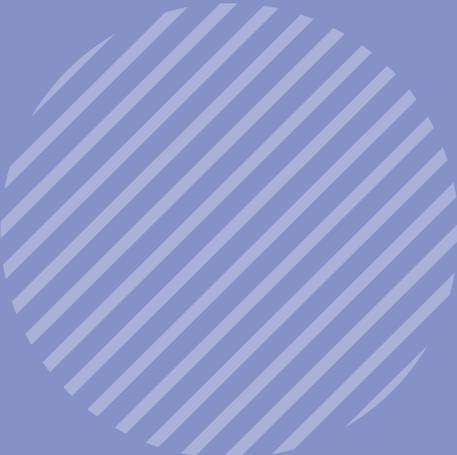
학교를 살리기 위한 주민-동문-교사와의 연합, 전문가-주민의 일상적인 교류와 접촉, 사회단체, 특히 교육관리기관과의 협약 등이 구체적 사례로 예시되고 있습니다. 원주민과 입주민 사이의 관계를 갈등 관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의 기량과 경륜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에 우리 농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사회의 혁신이 넓고 깊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공과 유통을 넘어, 농산식품의 가치사슬을 통합하여 극대화하는 “식농통합”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공식품을 이용한 마을 레스토랑 운영이 그 사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천연화장품 체험 및 개발도 주요 성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희시설 활용의 전형이었던 폐교의 내실 있는 활용과 함께, 노후된 차고, 지역개발사업 조성 시설 등의 다양한 활용, 그리고 빈집정비를 위시한 다양한 사업을 결합하여, 마을 공간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마을 호텔 조성 사업’ 등도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크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농촌을 주도하고 있는 OECD 는 농촌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 가치를 최근 지속 가능성에서 웰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040 농촌 비전에서는 “보다 강한, 연결된, 번영하는, 그리고 탄력적인 농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에 바탕한 웰빙의 추구가 우리 행복농촌 콘테스트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디, 참여 지역과 마을의 성과 사례가 다른 지역과 마을의 발전을 추동하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복 농촌의 기운을 주위에 전파하여, 다 함께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소득·체험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정문 두승산콩마을 **금상** 10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푸르내마을 **은상** 16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동자북마을 **동상** 22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모리마을 **입선** 28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호마을 **입선** 34



“ 작은 마을이 쏘아올린  
콩 하나의 기적,

**정문 두승산콩마을** ”





**금상** 소득·체험

## 정읍시 용계동 정문 두승산콩마을

작은 마을에서 콩 하나로 꿈을 이룬 기적은 최선의 선택과 집중,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지속 가능한 행복과 지역 발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정문 두승산콩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전라북도 정읍시 정문들목길 63-1

---

- 
**인구수**  
 66 명

---

- 
**가구수**  
 38 가구

---

- 
**마을 자원**  
 마을식당, 가공시설, 체험센터, 저온 저장고 등

---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의식변화
  - 소득 시설 및 사업 조성으로 마을의 문제점 해결
  - 투명한 회계 처리와 주민 참여 결정 시스템 운영





정문 두승산콩마을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주민수 66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지리적으로 농지가 적고 땅이 척박하여 '녹두밭 윷머리'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척박 했던 마을이 콩하나로 기적을 이루기까지는 주민 모두의 하나 된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을 만들어 좀 더 잘 사는 마을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발굴 육성사업 '시민창안대회'에 참여하여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부족했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마을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논 1,100평에 공동으로 콩 재배를 시작하고, 정부의 소득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마을 식당과 가공시설, 체험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공동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부, 콩물, 청국장, 두부과자 등 콩 가공식품 개발과 계절별 특색 있는 식당 메뉴 개발로 점차 매출이 증가하여 음식 체험 및 가공상품 판매가 본격화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정된 매출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 20명 이상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마을 발전 기금 적립과 주민 단합행사 등을 추진하며 행복한 농촌 마을을 만드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 녹두밭 윷머리에서 키워낸 희망 정문 두승산콩마을

---





##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의식 변화

주민들은 마을에 농지가 적고 척박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이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발굴 및 육성사업인 시민창안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부족했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면서 마을 소득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및 사업 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 시설 및 사업 조성으로 마을의 문제점 해결

마을 내에 경제적 소득 시설의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은 정부의 소득 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마을 식당과 가공시설, 체험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주민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노력은 코로나19에도 연간 4.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더 잘사는 마을, 행복한 농촌마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투명한 회계 처리와 주민 참여 결정 시스템 운영

마을 사업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나 주민들 간 불협화음과 이견 조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모두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투명한 회계 처리는 물론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난 10여 년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콩 가공식품과  
계절별 특색있는  
메뉴 개발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작지만 강한  
브랜드가 되었어요

”



## 정문 두승산콩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의 대표적인 소득·체험은 무엇입니까?

A

우리 마을의 주된 소득원은 마을 식당 운영과 콩 가공식품 판매입니다. 먼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정음시에서 생산되는 우리 콩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계절 메뉴를 개발하여 여름철에는 콩국수, 그 외의 계절에는 순두부, 청국장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을식당에는 2020년 기준으로 2만 6천여 명이 방문하여 2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콩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두부, 콩물, 청국장 등을 생산하여 로컬 푸드 마켓 등 8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작년을 기준으로 연간 2억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문마을 위원장 유명남

Q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A

우리 마을은 전국의 다른 스타 마을들에 비하면 많은 시설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독보적인 마을 자원도 없지만 그 어떤 자원보다도 10여 년간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우리 마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처럼 특별한 농촌 자원 하나 가진 것 없는 마을이 콩 하나로 어떻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전국에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장 채명숙



## 마을사업성과

### 1. 방문객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410	504	475	471	500
방문객수(명)	71,634	73,222	26,036	30,000	30,500

### 2. 총 소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410	504	475	471	500

### 3.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정규직 고용인원(명)	19	20	20	20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주민역량강화교육	3	2012	정읍시	• 웰빙체험센터 사전 교육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500	2012	행정안전부	• 식당, 가공시설 및 웰빙체험센터 구축
야외 냉장시설 설치	50	2013	정읍시	• 콩 저장시설 설치
체험관광형 슬로푸드사업	500	2018	전라북도	• 체험 및 교육시설
마을공동체 시설개보수사업	50	2021	전라북도	• 마을공동체시설 리모델링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0	2021	행정안전부	• 미디어홍보, 프로그램기획·운영



“ 서로를 포용하는 힐링의  
농촌마을

# 푸르내마을 ”





**은상**      소득·체험

## 연천군 청산면 푸르내마을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특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주민 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성장하며 고향의 정취가 가득한 농촌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 '푸르내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연로 30-62



**인구수**

525 명



**가구수**

266 가구



**마을 자원**

오이, 토마토, 단호박, 고추 등 지역 농산물, 한탄강 지질공원



**행복마을 성공비법**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 오이축제 활성화
- 도시와의 정기 교류 확대, SNS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 마을 소통, 협력, 화합 증진 및 활성화, 차별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경기도 연천의 푸르내마을은 포근하고 소박한 시골 인심을 그대로 간직한 전원마을입니다. 동쪽에는 종현산, 북쪽에는 한탄강 상류인 아우라지 강이 굽이쳐 흐르고 벌판에는 청정지역의 농산물이 풍요롭게 자라며 마을 주변에는 연천군의 대표 관광지인 제인폭포와 좌상 바위가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푸르내마을에서는 풍화된 토양에서 자란 특별하고 맛도 뛰어난 농산물을 활용하여 청정 시골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촌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으며 고향의 향수가 가득한 힐링과 포용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푸르내마을에서는 2009년부터 마을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체험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 및 수확 체험, 음식 만들기 체험, 생태견학 체험, 지역 명소 특성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총 50여 종의 계절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마을 주민의 농장을 농촌 체험 현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일자리 및 농업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마을의 성장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체험관 준공식을 통해 15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 체험관과 숙박시설 및 수영장, 정자, 포토존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며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농촌 체험 마을 운영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소박한  
시골 인심을  
고스란히 간직한  
**푸르내마을**

---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오이축제활성화

지역 농산물을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오이를 활용한 음식 체험과 오이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로 체험의 폭을 확장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농가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인 오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오이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 도시와의 정기 교류 확대, SNS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자매결연, 도농교류 추진으로 도시에는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농산물 직거래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을을 홍보하고 방문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격증 취득, 안전 교육 및 위생교육 등 마을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폭넓게 이수하며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마을 소통, 협력, 화합 증진 및 활성화, 차별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푸르내마을은 마을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및 후원, 프로그램 재능 기부는 물론 매년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에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 및 마을 행사 지원과 마을 잔치를 통해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을 수용하며 행복한 마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 특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체험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였어요

”

## 푸르내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의 대표적인 소득·체험은 무엇입니까?

A

마을의 우수한 자원이자 특산품인 오이를 활용한 체험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좋아 맛 좋고 향도 좋은 지역의 오이를 수확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음식 체험에서 출발해 오이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 오이 화장품은 오이 콜라겐 미스트, 오이 보석바 비누, 오이 손세정제 등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듬뿍 공급해 줄 수 있는 천연 화장품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프로그램들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마을의 활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사무국장 양갑숙

Q

행복농촌 만들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주민과의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은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마을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개개인의 힘은 작을 수 있지만 마을주민 모두가 화합하면 커다란 시너지가 되어 어떠한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물입니다.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의견,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마을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푸르내 마을은 언제나 서로 포용하는 마을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고 화합하며 행복한 마을로 지속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을 위원장 김선기



## 마을사업성과

### 1. 방문객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258,678	256,701	205,159	88,983	300,000
방문객수(명)	18,150	18,253	14,775	4,674	20,000

### 2. 총 소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백만원)	309,794	281,090	248,443	9,009	350,000

### 3.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정규직 고용인원(명)	23	24	22	22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재능나눔	20,000	2018. 6~11	한국농어촌공사	• 북한음식만들기
귀농귀촌마을 공동체활성화 (지금 이순간 농촌 힐링)	5,000	2020. 6~10	경기농식품진흥원	• 영농현장체험, 생산-가공프로그램, 지역주민과 소통, 화합
귀농귀촌마을 공동체활성화 (농촌의 가치를 깨닫다)	5,000	2021. 9~11	경기농식품진흥원	• 영농현장체험, 생산-가공프로그램, 지역주민과 소통, 화합



“ 주민 모두 주인이 되어  
행복을 빛는

**동자복마을** ”





## 동상

소득·체험

### 서천군 한산면 동자북마을

가가호호 전해 오던 한산 세모시와 소곡주 빚기를 마을 공동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농의소득을 창출하고 마을의 소중한 문화·역사 자원으로 계승하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맛을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 '동자북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36-16



##### 인구수

104 명



##### 가구수

57 가구



##### 마을 자원

동자북, 동자쌈, 마을체험관, 한산 소곡주, 한산 세모시, 한옥스테이, 체험식당, 길쌈놀이 인간문화재(전금순), 모시짜기 전수자(다수), 다향전통찻집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 사업 '마을 주민 누구나 주인공'
- 배움으로 더하여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 보람있는 삶터에서 함께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동자북마을은 백제 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자북 뒷산에서 북을 치다 전사한 열아홉 동자들의 전설과 마르지 않는 동자샘의 물로 빚어내던 소곡주의 명맥을 이어온 마을로 한산 세모시와 소곡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예전의 마을은 별이가 넉넉하지 않아 농업 소득만으로는 자식들을 키우기 힘들던 아녀자들이 밀주와 모시로 삶을 이어가던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동자북마을은 2009년부터 동자북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의 역사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곡주 사업과 체험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출자하여 공동으로 영농조합을 시작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여유가 없던 삶에 비로소 "휴(休)"라는 심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문화 계승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체험 상품인 전통 소곡주 빚기 체험, 한옥 체험, 소형 벼를 체험, 모시음식 만들기 등으로 '전통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전국 1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한산소곡주는 주민 공동 소득사업으로 삶의 풍요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활기차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래교실, 음식 나눔,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각지역 복지실천 등 동자북마을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마을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향의 멋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동자북마을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사업으로 '마을 주민 누구나 주인공'

술 익는 향기가 가득한 동자북마을은 지역의 자연 자원인 모시와 한산소곡주를 만들 수 있는 인적자원이 결합하여 마을 주민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동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남 무형문화재 3호로 등록된 한산소곡주는 가가호호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던 것을 영농조합 설립으로 품질을 일원화하였고 소곡주 빚기, 모시 베틀 체험 등으로 누구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배움으로 더하여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환경 관리 교육, 바리스타 교육, 음식 개발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과 멈추지 않는 배움 활동을 통해 '앓'을 실천하게 되면서 그동안 마을이 가지고 있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에 노인도 있어도 늙은이는 없는, 누구나 마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대로 삶을 지키며 더욱 발전하고 돈독해진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 보람있는 삶터에서 함께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출자금을 마련하여 주민의 6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농조합을 통해 마을 공동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 모두의 에너지가 더해지며 성과를 얻고 있는 마을 공동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은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을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

마을의 역사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돈독한 행복공동체가 되었어요

”



## 동자북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 공동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동자북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사가 주업이다 보니 농번기의 바쁜 농사일과 농한기의 부업 등 실 틈 없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소곡주 만들기를 마을 공동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이 마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니 마을 분들께서도 조금씩 출자금을 내어 조그맣게 시작하였고 지금은 동자북마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마을의 주 소득이 되었어요. 수익금은 자신의 주머니보다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자북마을 이장 노미숙

Q

동자북마을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A

단합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자산이나 특별한 보물은 없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서로가 힘들고 지칠 때는 짜증도 나겠지만 그러다가도 또 어려울 때는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어렵던 우리 마을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원을 다시 보고 그것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이뤄낸 것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니까 가능한 '단합'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더 큰 희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동자북마을 부녀회장



## 마을사업성과

### 1. 체험소득 및 방문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82	57	42	33	40
방문객수(명)	3,071	2,870	2,303	1,356	2,000

### 2. 총 소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100	75	65	50	60

### 3.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일용직 고용인원(명)	32	27	25	19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동자북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3,000	2009. 5~10	서천 문화원	• 동자북 체험관조성
소득체험 프로그램 개발	30	2009. 5~10	서천 문화원	• 소곡주빚기, 모시짜기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15	2012. 4 ~2014. 3	서천군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갈숲지구 한옥조성	918	2015. 7 ~2015. 12	서천군	• 한옥체험관 조성
특화음식개발	8	2018. 5 ~2018. 10	충청남도	• 체험마을특화음식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5	2020	농림부	• 농촌현장포럼, 소액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500	2021. 1 ~ 사업중	충청남도	• 충남형 마을만들기



“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풍요로운  
**모리마을** ”





## 입선

소득·체험

### 영동군 학산면 모리마을

활력을 잃고, 변화를 두려워하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야기하며 소통을 시작하니 마을 곳곳에 희망이 켜지고 소소하던 것들이 모든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 '모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모리 1길 38



#### 인구수

150 명



#### 가구수

75 가구



#### 마을 자원

블루베리, 포도, 산제장, 서낭당, 박쥐동굴, 갈기산, 비봉산, 모랭이둘레길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지역 특산물과 인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
- 귀농·귀촌인이 떠나가지 않는 마을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충청북도의 최남단 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리마을은 북쪽에 갈기산과 비봉산이 우뚝 솟아 있어 여기에서 시작된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는 마을입니다. 갈기산의 기암절벽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샘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장수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모리마을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활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주민 대부분이 1차 산업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 고정관념이 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 변화를 맞게 된 것은 2004년 농촌 전통테마 마을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마을에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 민물고기의 이름을 빌려 '금강모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테마마을로 지정된 후, 휴양마을 운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양마을 운영으로 깨끗한 자연과 맑은 물 등 마을의 청정 이미지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과일은 맛이 뛰어나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았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교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체험 및 가족 단위의 체험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매력에 빠져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활력 있는 마을입니다.

---

## 청정 자연과 맑은 샘물의 생명력 가득한 모리마을

---





## 지역 특산물과 인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

농산물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사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 농촌 체험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축제를 통해 농가와 체험객을 연계한 판매망을 확보하고 농사로 지친 주민들이 피로를 풀고 회복하며 농외소득의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 귀농·귀촌인이 떠나가지 않는 마을

고령화로 침체되었던 마을에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나며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최씨, 한씨, 남씨 집성촌으로 무리 지어 살던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들과 '전통테마마을'이라는 공통 주제로 모여 이야기하며 친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수십 년의 농사 비법을 나누고 농촌살이를 공유하며 귀농·귀촌인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모리마을의 행복 비법입니다.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마을 특성에 맞는 경관을 주민이 직접 계획하여 마을 입구에 황금편백나무를 식재하고 갈기산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를 통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주민 모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이야기로 꾸민 풍물 마당극 '모리네 사람들'을 통해 함께 웃으며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

머리를 맞대고  
삶과 지혜를 공유하니  
우리 마을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생기고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이 시작되었어요

”

## 모리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A

농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폐쇄적인 사고로 사업이나 체험프로그램에 회의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적했던 마을에 체험객들이 찾아오면서 주민들도 변화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0년 넘게 일손 부족을 겪던 주민들이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받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개복송아를 귀농·귀촌인 가정에 분양하여 이분들이 모리마을에 애착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는 이를 확장하여 복사꽃 축제나 복숭아 따기 체험, 개복송아청 판매 등 다양한 소득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장 한영기

Q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대면 체험이 불가능해지고 농산물 판매량도 줄었으며 이에 따라 농가 소득도 감소하면서 비대면 축제와 체험 키트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트렌드에 맞도록 레시피를 응용한 블루베리 크림 떡볶이, 찹쌀떡 만들기 등 체험키트를 개발하였고 활용 방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최할 수 없어진 축제를 대신하여 작년부터 시행한 비대면 블루베리 축제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산품의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여 농가 소득을 늘리고자 합니다.

-사무장 김종배



## 마을사업성과

### 1. 방문객 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백만원)	53,174	45,260	51,079	110,061	15,808
방문객수(명)	18,423	11,282	8,908	12,806	3,053

### 2. 총 소득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백만원)	76,060	57,430	58,774	148,168	33,798

### 3.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정규직 고용인원(명)	1	1	1	1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달집태우기 행사	2004년~현재	모리마을회	• 기원제, 달집태우기, 소원빌기
산제당 소원제	2014	영동금강모치마을 축제위원회	• 기원제, 산제당 소원빌기 등 프로그램 진행
모리마을 한마음 축제	2015	영동금강모치마을 축제위원회	• 주민노래자랑, 가마니짜기, 한마음통통 등 프로그램 진행
한마음 오복축제	2016	영동금강모치마을 축제위원회	• 주민노래자랑, 포도밟기, 오복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
모랭이 블루베리 축제	2016~2019	영동금강모치마을 축제위원회	• 블루베리따기체험, 블루베리공동판매, 주민노래자랑 등
사이버블루베리 축제	2020~2021	영동금강모치마을 축제위원회	• 블루베리온라인밋택배 판매



“ 한번 오면 눌러앉는  
오순도순

# 연호마을 ”





## 입선

소득·체험

### 해남군 황산면 연호마을

“시작과 끝을 마을에서 행복하게”

넓은 들판에는 주민들의 희망이 넘실대고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과 신뢰 속에 함께 웃고, 함께 가꾸고, 함께 나누는 행복이 있습니다

#### ‘연호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호길 18



##### 인구수

80 명



##### 가구수

40 가구



##### 마을 자원

청보리밭, 연호저수지, 유채꽃 단지, 해바라기, 마을드림, 수제맥주 공장, 난장이 농원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기업의 소득을 환원
- 주민 인식 변화를 통한 주민 공동체 형성
- 연호 보리축제로 마을 소득 창출 다양성 확보





대한민국의 땅끝,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연호마을은 간척지로 인해 넓은 들판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민들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들판을 시설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을의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은 마을의 다양한 소득 창출로 이어져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연호마을에서는 “잘 사는 연호마을 만들기”라는 목적 아래, 공동 생산 및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쌀, 보리, 밀, 배추, 마늘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와 유채, 해바라기 등 경관 작물 확대, 가공식품 개발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부녀회와 마을 기업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과 문화·복지 활동 및 연호 보리축제 등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었으며, 공동 소득 사업 또한 높은 신뢰 속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공동체 활동 연계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기업 농업회사법인(주)연호를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호는 대부분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마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 보리밭에서 넘실대는 희망 알알이 영그는 꿈 연호마을

---





###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기업의 소득을 환원

마을 주민 34명이 총 1억 원을 출자하여 운영 중인 마을기업에서는 계약재배, 경관 농업, 가공 상품 포장 등을 주민들에게 맡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경관 직불금, 농산물 판매 소득, 마을 화폐인 예코 코인 발행 등을 통해 마을기업의 소득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주민의 신뢰를 얻고 마을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 인식 변화를 통한 주민 공동체 형성

마을 주민들은 전라남도 마을 행복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공동체가 살아야 마을이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같은 인식의 전환으로 주민들은 직접 마을 축제를 개발·개최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죽 배달, 미용 등 마을 내·외의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며 주민들은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연호보리축제로 마을 소득 창출 다양성 확보

연호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는 20만 평에 이르는 보리밭을 활용하여 황산 연호보리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인 (주)연호가 설립되고 2020년 제2회 축제를 개최하면서 다시금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축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공품 판매 등을 통해 마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 행복의 열쇠는  
공동체의 회복이죠  
마을은 주민의 것이니까  
수익은 모두 나누고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



## 연호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 기업 소득 대부분을 마을에 환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A

마을기업 운영 전 연호마을은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민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녀회는 어르신 영양죽 봉사를 비롯해 수시로 마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공동체 회복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연호보리축제를 함께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 행복하게 잘 살자'는 마을 기업의 설립목적에 맞게 마을기업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대표 신옥희

Q

연호마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A

경관 작물을 확대하여 연로한 주민들의 농업 외 소득을 늘리고 수제맥주 공방 운영으로 청년층을 유입시켜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작물과 경관 작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개발하여 소득을 늘려나가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마을기업 소득을 일정량 적립시켜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마을 주민의 마지막까지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시작과 끝을 마을에서 행복하게'라는 마을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해 주민들의 전생애를 책임지는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기업 대표 신옥희



## 마을사업성과

### 1. 체험소득 및 방문객(연호보리 축제)

연도	2019	2020년(코로나로 규모 축소)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27.7	7.4	—
방문객수(명)	약 7,500	약 700	코로나로 인한 축제 취소

### 2. 마을기업 및 주민 소득

연도	2019	2020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543	1,081	1,700

\* 주민소득 : 유채 경관 - 2천2백만 원, 경관보리(밀) 경관 직불금-1억 원, 주주배당-2천만 원

### 3.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9	2020	2021
정규직 고용인원(명)	2	5	2
어르신 소일거리	5	7	5

\* 어르신 소일거리 총소득 : 2천만 원(2019년~2020년)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전라남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60	2019~2021	전라남도	• 주민공동체
전남 예비마을기업	24	2019	전라남도	• 마을기업
황산연호보리축제	59	2019	마을주민	• 주민화합
행안부형 마을기업	90	2020~2021	행안부	• 마을기업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	30	2021	해남군	• 경관 농업
경관관광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	2021~2030	해남군	• 경관 농업
마을만들기	500	2020~2022	해남군	• 마을만들기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문화·복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 **금상** 42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달강마을 **은상** 48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송정그림책마을 **동상** 54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마을 **입선** 60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통산마을 **입선** 66



“ 당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 학상리마을 ”





**금상** 문화·복지

##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주민들의 숨은 재능과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우리 마을만의 문화를 창조하며 ‘주민 스스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 ‘학상리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 6길 35



**인구수**

440 명



**가구수**

237 가구



**마을 자원**

학수고대축제, 학춤, 사람책도서관, 학수고대 카페, 교육관 등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학수고대 축제
- 인문학적 활동을 통해 발굴된 삶, 사람책도서관
- 주민들의 숨은 재능과 가치 발견, 마을 동아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의 유학산 아래에는 학수고대 마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학들이 많이 찾아와서 '학이 머무는 자리'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처럼 자연과 사람이 한가롭게 어울려살던 학상리 마을에 위기가 닥친 것은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학이 찾아오지 않고 주민들은 이촌향도의 물결을 따라 도시로 빠져나가면서부터입니다. 마을은 활기를 잃고 급속히 고령화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학도 사람도 떠나고 침체에 빠진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떠나간 학과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이 행복해져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2012년부터 칠곡 인문학 마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문적 경험과 삶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마을 벽화를 완성한 경험은 예술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올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과정에서 배움과 소통의 공동체가 생겨났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은 '주민 스스로'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 학과 사람이 함께 노닐던 한가로운 터전 학상리마을





##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축제, 학수고대 축제

주민들은 직접 학춤을 개발하고 매년 가을, 마을만의 연례행사인 학수고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축제는 주민들이 황금들판에 모여 다 함께 학춤을 추는 축제로 떠나간 학과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기획부터 준비, 진행 등 모든 과정이 마을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인문학적 활동을 통해 발굴된 삶, 사람책도서관

칠곡 인문학 마을 활동의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사람책도서관'은 주민들의 각자 다른 삶과 개성 넘치는 이야기를 학상리만의 독특한 무형 문화로 만든 사례입니다. 축제 때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하여 듣는 사람도 말해주는 사람도 삶에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의 숨은 재능과 가치 발견, 마을 동아리

마을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 내 주민 강사를 양성하여 주민 강사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 스스로 동아리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수고대 복합문화공간, 교육관, 청년 회의소 등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이 조성되어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의 숨은 재능과  
가치를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 삶의 터전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견이  
가장 값진 수확이에요

”



## 학상리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의 대표적인 축제 또는 활동이 있나요?

A

학상리에는 마을을 떠난 학과 사람들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길 기원하는 대표적인 연례행사 '학수고대 축제'가 있습니다. 학수고대 축제에서는 매년 가을, 주민 모두가 도포를 입고 황금빛 눈에 들어가 학춤을 추면서 학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또한 농악, 다례, 재봉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사람책 도서관, 마을 문패 만들기, 마을 그림 동화책 만들기 등의 인문학 활동으로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학상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농촌 문화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 김학봉

Q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을까요?

A

예전에는 농사짓기도 바쁜데 귀찮은 일을 왜 하나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청년들과 함께 마을 벽화를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고, 문화예술 활동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활동으로 배움과 소통의 공동체가 생기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 터전은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문화예술 활동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을활동가 엄은희



## 마을사업성과

### 1. 마을축제 방문객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방문객수(명)	300	400	200	450	450	코로나로 미 실시	500

### 2. 동아리 운영횟수 및 참여자 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동아리 운영횟수(회)	80	156	216	256	280	60	320
방문객수(명)	50	50	75	90	105	35	125

### 3. 마을 소득 및 주민 일자리 창출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카페운영 및 수공예작품 판매액(백만원)	22	30	35	15	30
주민 강사화 및 고용인원(명)	5	6	5	4	3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문화이모작 '아트랜스파머'	10	2012	인디053, 학상리 커뮤니티와경제	마을벽화 및 마을사진전
농촌공동체문화 조성사업	2	2013	농림축산식품부	학수고대(복합문화공간)조성
칠곡인문학마을 특성화사업	42	2013~2021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인문학 마을살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문해교실</li> <li>사람책도서관</li> <li>마을문패교실</li> <li>민화교실, 서각교육</li> <li>생각밥상</li> </ul>
농촌축제지원사업	119	2015~2021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수고대 축제개최(년1회)</li> </ul>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000	2019~2021	칠곡군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문화공간 리모델링</li> <li>교육관 설립</li> <li>경관 조성, 둘레길 정비</li> </ul>



“ 달인들이  
살아가는

# 세월리 달강마을 ”





**은상**      문화·복지



##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달강마을

‘삶을 그리고 마을을 디자인하다’  
 저마다의 재능과 일상을 나누는 달인들의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으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마음을 모아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세월리 달강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135



**인구수**

768 명



**가구수**

376 가구



**마을 자원**

자연 자원 \_ 남한강, 골안계곡  
 근대사 자원 \_ 나루터, 양조장터, 빨래터  
 생활·문화 자원 \_ 세월초, 보건소, 마을 갤러리, 마을 달인들



**행복마을 성공비법**

- 모두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 삶을 디자인하고 나누는 다양한 달인들
- 선·후 주민이 함께 만들어간 마을 문화 공동체





달인들이 살아가는 “세월리 달강마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 한 농촌마을입니다. 2008년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주민, 동문, 교사들의 노력이 모여 마을이 살기 위해 학교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을학교 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축제가 12년간 지속되며 마을의 단계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지금은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일상을 나누는 달인이 되었고 세월리는 많은 달인들이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을 사랑방에서 함께 소통하고 2015년부터 양평군 어울림 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의 원주민들과 후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 운동회, 달시장 등의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친해지고 행복한 마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여행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야기길, 부녀회 마을 밥상에 대한 호평을 얻어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지원 사업으로 마을의 옛 ‘정미소’가 ‘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로 2021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센터와 함께 새로운 기대를 품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 달빛 머문 강가에서 삶을 그리는 저마다의 달인들 세월리 달강마을





## 모두가 함께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2008년 마을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마을학교 축제는 마을을 살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은 결실이 되어 폐교 위기였던 세월초등학교는 2008년에 비해 학생 수가 약 2배 증가했으며 마을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마을에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활동들이 많아졌습니다.

## 삶을 디자인하고 나누는 다양한 달인들

짬뽕, 재활용 달인에서 모험놀이, 원예, 바느질, 요리 달인 등 10명이 넘는 마을 달인들은 일상의 가치와 재미를 나누기 위해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미를 넘어 나눔을 실천하는 달인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뿐만 아니라 그보다 값진 관계를 나누고 소통하며 세월리 주민 모두가 달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 선·후 주민이 함께 만들어간 마을 문화 공동체

후주민이 80%인 양평 농촌마을에서 세월리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은 남한강가에 포토존을 만들고 달인을 위한 한뼘 갤러리와 아트벤치 제작,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2019년 만든 “달강 이야기길 마을지도”는 세월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달인들을 소개하는 여행지도가 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자연 속  
어울림의 일상과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으로  
다양한 재능을 나누며  
관계를 디자인하는  
행복한 동행이 있어요

”

## 세월리 달강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2008년 이전과 13년이 지난 2021년 마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폐교 이야기가 나온 2000년대부터 동문과 주민들이 세월초등학교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08년 선생님들이 마을학교 축제를 기획하였고 마을연극, 옛사진전 등을 재미있게 보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세월초등학교가 안정되고 젊은 학부모들과 함께 마을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양평 어울림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이 활발해졌습니다. 세월리는 큰 사업을 지원받은 적은 없지만 주민들 스스로 달인이 되고 직접 프로그램과 마을 지도를 만들면서 자랑거리가 많고 활기 넘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이장 최영환

Q

세월리 달강마을이 갖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A

세월초등학교에 학생이 꾸준히 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공유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양평군의 지원으로 마을 회관 앞 옛 정미소를 '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洗月情美所)'로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의 달인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함께 어울리기를 바라며 이곳을 기반으로 주민과 달인, 마을 예술가들이 함께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달강 이야기길 지도'를 통해 젊은이들이 많이 놀러오고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농촌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이장 최영환



## 마을사업성과

### 1. 마을 행사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2(계획)
행사 수	2	4	6	7	10개 이상
참여인원(명)	400	700	900	1,000	2,000

\* 코로나 19로 모임이 어려웠던 2020-2021년을 제외함. 2022년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 2. 마을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계획)
행사 수	2	7	10	12	40
참여인원(명)	40	100	180	200	500

\* 2020년 코로나/ 컬러링북 북 만들어 100명 주민 전달·전시 포함

\* 2022년 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마을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예정

### 3. 문화(달인) 자원 발굴 (자연·근대사 자원 제외)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계획)
공간/문화	1	2	6	11	13
달인	3	6	8	11	15명 이상

\* 2022년 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를 통한 '나도 달인' 활성화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양평 어울림 공동체	65	2015~2019	양평군	• 문화/복지 프로그램, 행사
지역문화 자원 발굴 "보이는 마을"	50	2018~2020	경기문화재단	• 달인발굴, 이야기지도, 여행프로그램 개발
생활 문화 공동체 만들기	16	2020	지역문화진흥원	•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컬러링북, 마을미술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380	2020	경기도 문화과 양평군	• 옛 정미소 ▶ 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 건립

“ 이야기가 있는 한  
마을은 이어진다

## 송정그림책마을 ”





**동상** 문화·복지

### 부여군 양화면 송정그림책마을

주민 개개인의 삶이 이야기가 되어  
마을의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인생의 그림책에 담아낸 삶의 가치와 자부심으로  
마을의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정그림책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북로 222번길 13-1



**인구수**

53 명



**가구수**

26 가구



**마을 자원**

야학당, 우물터, 문화광장, 송정그림책찾집, 벼, 고추 등



**행복마을 성공비법**

- 100년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솔선수범 문화
- 합리적,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 및 주체적 역할 부여
- 주민 개개인의 삶이 마을 자원이 된, <내 인생의 그림책>





한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야기로 엮어 그림책을 만들며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송정그림책마을은 햇살이 환하게 들고 마을 뒤쪽에는 둥글둥글한 산과 앞쪽으로는 제법 큰 냇가 흐르는 아늑한 마을로 산천을 닮아 순박한 사람들이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1910년대 송정마을은 수백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큰 마을이었으며 주민들은 학구열이 뛰어나 문명을 방지하기 위해 야학당을 열 정도로 글쓰기, 읽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야기로 이어지는 송정그림책 마을은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에서 흔하게 매몰되어버릴 수도 있는 개인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문화마을입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고, 사람의 중심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즉 서사가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소멸해가는 농촌 공동체를 이야기를 통해 복원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어내어 이야기 문화, 그림책 낭독 문화로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인의 자존감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였고 피동적 복지를 극복하고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복지를 정착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는 문화마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동화 같은 곳  
**송정그림책마을**





## 100년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솔선수범 문화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100년간 이어져오는 솔선수범 정신으로 가장 어른부터 마을 굵은일에 먼저 나서고 모두 함께 달려들어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마을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더 커다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어 주민 전체에 귀감이 되고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합리적, 민주적 운영 시스템 및 주체적 역할 부여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 경험과 참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위원회가 의결하고 이끄는 방식 대신 모든 주민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주민들 스스로 송정마을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 주민 개개인의 삶이 마을 자원이 된, <내 인생의 그림책>

마을의 부흥을 위해 시작한 벽화 그리기, 분필 아트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의 삶도 가꾸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 읽는 시민모임'의 도움으로 102번의 만남과 1,000장 이상의 그림을 손수 그린 결과, 3년 만에 주민들 인생의 그림책 23권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위주의 농촌 활동에서 마을 공동체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는 삶의 가치를 일깨우고 소멸 위기의 농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저마다의 색깔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마을의 자원이 되고  
평생 이름을 잇고 살던  
어르신들은 그림책  
작가가 되었어요

”



## 송정그림책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주민들의 이야기를 끌어내자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송정마을은 과거에는 주민도 많고 학구열도 뛰어난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공동체도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부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마을을 청소하고 벽화를 그리며 마을축제와 분필아트 활동까지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잘 가꾸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도 가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기록하고 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덕분에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송정 그림책마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상신

Q

그림책을 엮어내며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A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재탄생시키는 일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식의 전환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인 ‘그림책읽는 시민모임’이 2년간 주민들과 어울려 일일이 녹취록을 작성하여 도움을 주셔서 이야기 책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림 그리기 작업을 위해 7개월 동안 1,000장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열정으로 <내 인생의 그림책>이라는 총 23권의 그림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주민들 자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상신



## 마을사업성과

1. 송정마을 이야기꾼 및 문화활동 실적 - 2017년부터 현재(2021)까지 누적 224회

2. 송정마을 인형극단 활동 - 2018년부터 현재(2021)까지 연습모임 116회, 공연 91회

### 3. 마을 방문객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방문객수(명)	2,100	9,900	12,000	341	20,000

### 4. 총 소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매출 실적(백만원)	6	38	34	1	50

### 5.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계획)
일용직 고용인원(명)	7	7	14	21

\* 그림책 찻집운영 요일할머니 교차활동

### 6. 주요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명품벽화마을 조성사업	-	2010	부여군청	• 아름다운 담장조성사업
살기좋은희망마을 만들기	30	2014	충청남도	• '이야기가 있는 벽화길' 조성
창조지역사업	910	2015~2017	지역발전위원회	• 이야기 발굴, 그림책 발간
창조적마을만들기	450	2016~2017	농식품부	• 야학당 경관정비, 주민역량강화
공공디자인공모사업	460	2016~2017	문화진흥원	• 돌담 조성, 스토리 구조물 조성
양성평등 지원사업	80	2018~2020	부여군 가족행복과	• 양성평등 인형극단 창설
충남 관광드라마을 사업	15	2019	충청남도	• 마을 고유자원 기념품 제작
공공시설조성사업	50	2019	부여군환경과	• 야외 공동화장실 신축
마을활성화사업	70	2019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	• 마을야학당 보수
주민참여 우수마을 지원사업	20	2020~2021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	• 느린그림엽서 프로그램 개발
마을다큐제작	8	2021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 이야기 전승을 위한 다큐제작



“ 같이하는 가치가 있는  
행복한 마을

# 함덕리마을 ”





**입선** 문화·복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환경을 보전하고  
마을 수익금을 주민에게 재투자하여  
깊이와 넓이가 남다른 문화 콘텐츠가 가득한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 '함덕리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6

 **인구수**  
7,281명

 **가구수**  
3,285가구

 **마을 자원**  
함덕해수욕장, 서우봉, 도르뫓 습지, 함덕연대 등

 **행복마을 성공비법**

- 지속적인 성취감을 통한 주민의 동기부여
- 마을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





함덕리(咸德里)는 “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총 5개의 구로 구분되며 각 구에서 선출된 개발위원, 대의원으로 회의 체계를 갖추고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해방 전후 제주 최초로 말 구루마를 이용하여 수박과 배추의 판매로 부를 이루기 시작하여 현재는 마늘과 배추, 감귤, 백향과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함덕해수욕장의 백사장은 과거 8선진의 땅이었으나 기부되어 현재는 함덕리 새마을회 소유로 등기돼 있는 제주도 유일의 마을입니다. 기부의 뜻에 맞게 함덕리는 이를 마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 중 누적 지원금 약 11억 원을 함덕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및 교육사업에 환원하였습니다.

특히 함덕리는 매년 인구증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정착 주민의 감소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마을로 이주민들도 마을 조직에 참여하여 폭넓은 경험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선주민이 가진 지역 문화와 융합하여 마을을 좀 더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공존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꾸준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문화 공동체 참여를 이끌며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정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마을에 재투자하는 문화·복지가 풍부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와  
쏟아지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함덕리마을**





## 지속적인 성취감을 통한 주민의 동기부여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함덕리마을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한데 어울려 마을의 각 자생단체에 가입하여 플리마켓을 열고 해수욕장도 함께 운영하는 등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조직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성취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의 발견과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나아가 마을의 내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마을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주민들은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연 자원의 보존을 통해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2015년부터 '서우봉지킴이'들이 매월 서우봉 산책로 및 둘레길 주변을 돌보고 있으며 도르몹습지 정화 활동을 통한 생태보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

주민들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마을 자원의 소중함과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한 함덕리는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1988년 '함덕 장학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총 657명의 학생들에게 약 6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1985년부터는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복지사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문화와 복지, 재미가 가득한 함덕리마을은 선·후 주민들의 폭넓은 경험과 새로운 시각이 공유되며 다양한 가치관이 어울려 살아요

”

## 함덕리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A

함덕리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함덕해수욕장과 오름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마을입니다. 이러한 환경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바로 알고 선순환을 통한 마을의 자립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형 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한 마을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상가 두 곳의 임대수입과 해수욕장 운영수입, 앞으로 설립될 마을기업을 통한 수익이 마을에서 소외되는 어려운 계층 및 문화·복지사업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 주민 스스로 함덕리에 자부심을 가지며 문화·복지가 더욱 풍성해지는 함덕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대표 한명용

Q

행복농촌 만들기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A

이전부터 우리 함덕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협동심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지속적인 성취감이 충족될 수 있고 마을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그런 마을의 의지와 취지에도 너무나도 잘 맞는 행사라고 생각되어서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무장 김소희



## 마을사업성과

### 1. 마을 총 소득 (임대수입 및 해수욕장 운영수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 실적(백만원)	194	351	412	414	460

### 2. 함덕리 공동체 주요 사업 활동 현황

활동기간	누적인원	사업 내용
1983~	657명	매년 함덕리에서 함덕초·중·고 장학금 지급
1984~	연평균 3,900여명	마을 자체 운영 함덕리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 내 교육 활성화
1989~	편집위원 7~10명	마을 신문 발간 (현) '서우봉소식지' 1회당 4,500부 씩 발행
2000~	10,000여명	매년 1월 1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서우봉일출제' 운영
2001~	연평균 120여명	5개 구의 경로당 회원관리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2013~	70,000여명	매년 7~8월 함덕해수욕장 내 뮤직위크 페스티벌 개최
2015~	3,400여명	매월 둘째주 일요일 '서우봉지킴이' 월례 정화 활동
2017~	84명	매년 '함덕문학회'에서 시·수필 문학집 발간
2019~	120여명	친환경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종이빨대 무상지원)
2019~	38명	마을주민 주도 플라마켓(이주민 70%이상 참여) 운영

### 3. 행정지원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마을 정비 사업	2012~	2,400	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품해수욕장 개발</li> <li>소공원 조성</li> <li>마을회관 일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등</li> </ul>
서우봉해변 관련사업	2014	240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변 내 팔선진 조형물 설치</li> <li>함씨할망 조형물 및 비문 설치</li> <li>화장실 신축 등</li> </ul>
함덕해변 이벤트 공간 조성사업	2019~	110	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변 내 팔선진 조형물 보수</li> <li>함씨할망 조형물 및 비문 보수</li> </ul>
지역역량 강화 사업	2020	12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발전계획 수립</li> </ul>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2021	45	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우봉 주변 환경정비</li> </ul>



“ 행복 두드림,  
문화로 통하는 신통방통

# 통산마을 ”





입선

문화·복지

## 진천군 문백면 통산마을

전통문화 계승, 공동체 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등으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대공감을 이끌어냅니다.

### '통산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평산 2길 16-4



**인구수**

125명



**가구수**

65가구



**마을 자원**

전통자원: 옷샘, 상앗집, 전통장례, 상수리나무 전설

경관자원: 종을 품은 버짐나무, 마을벽화, 꽃길조성 등

공동체 자원: 신통방통 신나유 축제, 다목적 광장, 쉼터 등



**행복마을 성공비법**

- 주민 주도의 역량 강화로 "소통과 협력" 공동체 조성
- 자발적인 축제를 시작으로 행복을 두드리는 통산마을
- 전통문화 복원을 통한 특색있는 마을 정체성 확립





충청북도 진천의 “행복 두드림 문화로 통하는 신통방통 통산마을”은 성주머니, 대밭골, 통리마을 등 3개의 자연부락이 합쳐져 통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담을 때 쓰는 바가지 같은 통 두 쪽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둥근 산이 마을 동쪽에 있어 ‘통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산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화롭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서 단위 사업을 통해 옛것과 새것을 정갈하게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통산마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농촌 마을처럼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 인구는 줄고 빈 집도 늘어났습니다. 고령화로 침체에 빠진 마을에는 돌봐줄 식구가 없는 독거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침체 속에서 주민들은 마을이 가지고 있던 장례문화를 복원해 마을사업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차례의 마을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통 장례문화를 복원하게 되었고 이는 전통문화의 회복과 동시에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자체 기금으로 실버댄스 동아리, 풍물 동아리, 한글 동아리, 전통주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작품 전시, 전통주 시음회, 전통 장례문화 복원·시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통방통 신나유 축제를 통해 주민 화합을 이뤄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회복으로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통산마을**





### 주민 주도의 역량 강화로 “소통과 협력” 공동체 조성

현장포럼과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던 주민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회복의 열쇠는 소통과 협력이라는 중요성을 깨달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통산’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자발적인 축제를 시작으로 행복을 두드리는 통산마을

2017년 마을에 다목적 광장이 조성되고 ‘제1회 신통방통 신나유콩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소통과 나눔으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세대 간 공감과 주민 화합의 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전통주 시음회로 발생된 판매 수익은 주민 동아리 활동과 독거노인 케어에 지원하는 선순환형 수익구조 마련으로 주민 행복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통문화 복원을 통한 특색 있는 마을 정체성 확립

통산마을은 장수마을로 선정될 만큼 장수하는 어르신이 많은데 마을 내 독거 노인 10명 중 3명은 가족이 없는 분들입니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을 위해 사라졌던 전통장례 문화를 복원하였고 전통문화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장례 문화 시연, 상앗집, 옷샘, 연자방아, 물레방아를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의 제조·판매 등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전통문화의 힘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소통과 협력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삶을  
만들고 있어요

”



## 통산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주민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나요?

A

2017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통방통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축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위로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신통방통 신나유 축제'를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화꽃이 핀 마을 안길을 산책하며 힐링하고, 실버댄스, 풍물, 전통주, 한글 동아리에서는

평소에 갖고닦은 실력을 자랑하고 전통주 시음회 진행과 다과를 통해 주민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통방통 신나유 축제'는

2019년 충북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부녀회장 총무 배연자

Q

마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마을 어르신은 나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같이 보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언젠가 될지는 몰라도 가시는 길도

외롭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통 장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통산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민 한 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와 전통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체계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양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마을 대표 윤상호



## 마을사업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 2015~현재** 해맞이행사(매년 1회, 망태산 전망대, 마을의 안녕기원을 위한 제사)
- 2016~현재** 마을안길 및 하천청소, 폐비닐, 빈농약수거, 사계절 꽃길조성 매월 1회
- 2016~2019** 실버건강댄스, 풍물, 전통주, 노인 한글학교 진행, 매월 4회
- 2017~현재** 신통방통 신나유 축제 개최 (년 1회, 총 4회 진행), 연극프로그램 진행, 공동급식, 노인가구 도배공사·건강검진, 반찬나눔 및 독거노인케어, 실버건강댄스, 풍물 등 외부 공연(농다리축제, 한마음축제, 문백노인잔치)
- 2019~현재** 실버건강댄스, 풍물, 전통주, 노인 한글학교 → 자체 동아리 결성(매월 4회)
- 2020~현재** 전통장례 복원·시연, 신통방통 고구마 심기(마을부지), 마을 브랜드 자체개발
- 2006~2021** 언론 홍보 25건

### 1. 체험소득 및 방문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0	2	5	5	10
방문객 수(명)	150	250	400	200	300

### 2. 총 소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매출액(백만원)	0	5	10	30	50

### 3.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정규직 고용인원(명)	0	0	1	1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농촌건강장수마을	100	2016~2017	농촌진흥청	• 마을유래비 조성 • 풍물 • 실버 건강댄스 • 전통주 프로그램 등
다목적광장·쉼터 조성 사업	200	2017	충청북도	•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자율개발)	500	2017~2019	진천군	• 상엿집·옷샘·연자방아 복원 • 등산로정비 • 산책로조성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300	2020	진천군	• 장미터널조성 • 옷샘지붕설치 • 종을 품은나무 복원 등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경관·환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호동골과 젓떼기마을 **금상** 74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마을 **은상** 80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마을 **동상** 8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개비마을 **입선** 92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산촌마을 **입선** 98



“ 자연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 호동골과 젓떼기마을 ”





금상

경관·환경

## 보령시 천북면 호동골과 젃떼기마을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마을과 한마을 안에서도 각자 살아가던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깨닫고 행복농촌 만들기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호동골과 젃떼기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605



인구수

132 명



가구수

60 가구



마을 자원

자연자원 : 회변갯벌, 보령 신항부지, 굴, 키조개 등  
 공동체자원 : 대동회, 개발위원회, 영농조합법인 등  
 경제자원 : 축사, 울타리 강낭콩, 송어행사장, 키조개공장 등



행복마을 성공비법

- 함께 꾸는 꿈,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리스타트'
- 마음을 열고 웃음을 만드는 마을 만들기
- 쓰레기의 새로운 탄생, 마을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학성2리 젓떼기마을은 자연과 사람이 살아 숨쉬는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에 의해 발생한 쓰레기로 심각한 오염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주민들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7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며 마을 경관 복원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함께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한편 마을의 자원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과 마을 힐링공원 및 마을 정원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 복원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업사이클링 활동과 환경 보존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며 마을 경관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는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이끌어내 작은 일에서 생기는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눔 정원에서 만남으로 화합, 소통, 배려,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들의 삶에 스며들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다른 마을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복 농촌 만들기의 표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이룬  
참나무 숲의 기적  
**호동골과 젓떼기마을**





### 함께 꾸는 꿈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리스타트’

각자의 생활 위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마을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을 리더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자원을 파악하고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행복농촌 만들기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 마음을 열고 웃음을 만드는 마을 만들기

주민들이 조성한 마을 정원은 심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서 생기는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정원을 통해 만남과 소통, 희망, 나눔이 되었습니다. 출향민과 주민들의 화합 도모를 위한 ‘우리 마을 한마음 축제’를 통해 마을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마을 만들기가 주민들 삶에 스며들었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웃음이 절로 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 쓰레기의 새로운 탄생과 마을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마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은 업사이클링이라는 대안을 찾으며 “고물을 보물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을 업사이클링 밴드에서는 버려진 농·어구를 활용하여 실로폰, 탬버린, 북 등 악기 9종을 제작하였으며, 쓰레기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송과 영상 제작, 마을 표어 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마을의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되었습니다.

“  
예쁜 마을이라는 그릇에  
주민들이 담기니  
갈등이 화합으로  
분열이 소통으로!  
마법 같은 변화가 펼쳐지는  
마을 정원으로 오세요



## 호동골과 첫떼기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A

마을 만들기 활동 전, 마을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과의 어울리고 마을 사업 역시 돈이 되는 일인지부터 생각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 자산보다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체 활동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동사업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모두를 위한 배려와 양보,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 최대성

Q

앞으로 5년 후,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A

마을의 공유 자산을 늘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법인 운영을 통해 마을 사업과 체험장을 함께 운영하고 싶습니다. 섬마을과의 교류로 바다체험과 캠핑을 하고 마을회관 앞바다가 매립되면 마을 정원을 만들어 농촌과 바다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마을을 찾는 캠핑객과 관광객이 늘어나 마을의 일거리가 생기고 마을 환경이 좋아지면서 귀향인과, 귀촌, 귀어민이 늘어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 천북면과 보령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복농촌 만들기의 표본이 되는 마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을 이장 최대성



## 마을사업성과

### 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내역

공모사업명	시기	금액(천원)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018	36,300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
농촌들녘 가꾸기 사업	2019	5,000	• 깨끗한 농업생산 환경 개선 및 경관 작물 식재관리, 도농교류
창안학교 주민공모사업	2019	5,600	• 도로변과 마을 회관 앞 화단조성
깨끗한 마을 가꾸기	2019	700	•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재료 구입
농촌환경실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2019	1,000	• 천북면 우수마을 선정
마을자원조사책 발간	2019	5,000	• 마을의 역사 및 자원현황 등
희망마을 선행사업	2020	30,000	• 마을 표지석 설치 및 마을주민 교육 기자재 구입
마을가꾸기 소액공모사업	2020	5,000	• 소통정원 및 마을쉼터 조성
발전소 주변지역 지방교부금	2020	18,755	• 마을 다목적 창고 건축
마을 의제 발굴 및 지원사업	2020	20,000	• 업사이클링 악기제작, 쓰레기 인식개선 활동, 뮤직비디오 촬영 등
깨끗한 마을가꾸기 소액 공모사업	2021	5,000	• 어울림 공간 조성
마을홍보물제작	2021	3,000	• 마을회관 현판 및 게시판 제작, 마을정원 꽃말 제작

### 2. 마을 경관 가꾸기 및 환경보존 활동내역

구분	주요활동	참여인원	2018	2019	2020	2021 (7월기준)
우리마을 청소의 날	마을 안길 및 하천 쓰레기 청소, 제초작업, 마을 꽃길 가꾸기	40~50명 이상	년 12회	년 12회	년 12회	년 7회
마을정원 관리(희망, 배려, 참여, 나눔, 소통, 화합정원)	정원 잡초제거, 계절 꽃 식재 및 관리	정원별 5 (30명)	년 12회	년 23회	년 14회	년 14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날	종류별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판매 및 생필품 구입	주민 100%	년 12회	년 12회	년 12회	년 7회
마을방역	여름철 마을방역	개발위원 및 청년회	여름철 수시방역	여름철 수시방역	여름철 수시방역	여름철 수시방역
농촌, 바다 쓰레기 수거의 날	농촌 폐농약병 및 비닐 수거, 바다쓰레기 수거활동	40명 이상	년 12회	년 12회	년 12회	년 6회

### 3. 마을 환경보존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내역

구분	주요활동
업사이클링 밴드	버려진 농,어촌 쓰레기로 악기 9종 제작, 악기연주 연습, 무대 및 연습실 설치
인식개선 캠페인송 제작	농촌쓰레기 문제 : 분리분리(주라주라 개사)   바다쓰레기 문제 :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쓰레기 문제 인식개선 영상제작	분리분리 및 니가왜 거기서 나와 뮤직비디오 제작(2편) 쓰레기 문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다류영상 제작(2편)
마을표어 공모전	내가 버린 쓰레기 기후변화의 씨앗이 된다(선정표어) - 식당, 선박, 낚시 용품점, 면사무소, 농협 등 부착
손글씨 챌린지	쓰레기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손글씨 챌린지



“ 산과 물, 사람이 어우러져  
행복을 가꾸는

# 상천마을 ”





**은상**      **경관·환경**

## 제천시 수산면 상천마을

마을 환경을 해치는 소득 시설을 없애고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 가꾸기 활동을 통해 갈등하던 주민들이 화해의 손을 잡아 자연스럽게 마을 소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상천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 1길 16



**인구수**

115 명



**가구수**

66 가구



**마을 자원**

금수산, 가은산, 신선봉, 망덕봉, 독수리바위, 12시바위, 방아학, 용담폭포, 보문정사, 담배건조장, 소나무 보호수, 산수유 군락지, 갈참나무 군락지, 송이버섯, 능이버섯, 산신제 등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 소득보다 자연가꾸기, 마을의 재탄생
- 귀농·귀촌인과 의견을 나누고 모든 주민이 공유하기
- 지키고 가꾸고 나누며 '함께 삶'을 실천





봄이면 한 폭의 수채화보다 아름다운 상천마을은 예전부터 산수유를 말려 약재로 팔아 지식 교육을 시키던 곳입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해 마을의 절반이 물에 잠기게 되자 많은 주민들이 이주했으며 마을의 주요 기반 시설이 수몰됨에 따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2003년, 마을이 고립·폐쇄되어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서 경제적 약재를 겪고 있던 중 친환경 민속마을로 선정되며 상천 숲가마가 조성되고 많은 방문객들이 찾기 시작하며 마을은 탄생 이래 가장 넉넉한 경제적 부흥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숲가마에서 나오는 매연과 쓰레기 등으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며 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함께 상생하는 길에 대해 논의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을 지키고 가꾸고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상천리의 비전을 선포하고 상천 숲가마를 폐쇄하였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마을 자체 장수 연금을 지급하고, 주민공동주택 건설, 산수유 추가 식재, 산수유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약선 장류 체험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상천 주민 모두는 산수유꽃 축제와 산수유 열매 축제를 통해 상천마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지키고 가꾸고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풍 같은 산과  
호수가 감싸 안은  
수채화 같은  
상천마을





## 마을 소득보다 자연 가꾸기, 마을의 재탄생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지속된 마을의 경제적 빈곤 상황 속에서 2003년 조성된 상천 숲가마는 마을 최대 소득원이었지만 숲가마에서 나오는 매연과 쓰레기 등으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주민들은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통해 상천 숲가마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주민공동생활주택을 건립하고 산수유를 추가 식재하여 마을 경관을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 귀농·귀촌인과 의견을 나누고 모든 주민이 공유하기

자연 경관을 지키기 위해 매연 및 쓰레기를 유발하는 상천 숲가마 폐쇄, 제조제 사용 자제 등 귀농·귀촌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을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현안의 결정과 시행에 앞서 스마트 방송 및 안내를 통해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마을 소식을 접하고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 지키고 가꾸고 나누며 ‘함께 삶’을 실천

갈등의 원인이던 상천 숲가마 폐쇄 후, 주민들은 경관 보존 협약을 체결하고 갈참나무 군락지의 보호수 추진 등 상천마을 10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소, 꽃길 가꾸기, 마을 빈 집 공동 관리, 1인 1식 관리제 등으로 마을 가꾸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상천 휴게소의 공동 운영, 능이버섯 공동 채취, 약선 장류 체험장 활성화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마을에 재투자하고 장수연금 지급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살아온 주민들과  
살려고 온 주민들,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소통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 가꾸기를 선택했어요

”

## 상천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상천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A

상천 마을은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이 '비단결처럼 아름답다'하여 이름 붙인 금수산과 가은산으로 둘러싸인 산골마을입니다. 마을 앞으로는 청풍호가 절경처럼 펼쳐져 봄이면 한 폭의 수채화보다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을 가까이에 있는 산수유나무 군락지, 소나무 군락지부터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싼 산자락의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각양각색의 바위들과 600년 된 소나무, 용담폭포, 산수유 마실 길 등이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을 자원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이장 안경태

Q

마을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A

2021년 현재 저희 상천마을은 폐지된 솟가마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주택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난방비 절감 효과는 물론 독거 어르신들을 보다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마을의 특색 있는 자원인 산수유나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나무 한 그루를 맡아 관리하는 1인 1식 관리제와 산수유 3,000주 추가 식재를 통한 산수유 축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산수유축제는 노란 꽃이 피는 봄에는 꽃축제로 가을에는 빨간 열매를 활용한 축제로 연 2회 실시될 계획입니다.

-마을 이장 안경태



## 마을사업성과

### 1. 공동체 활동 실적

횟수(날짜)	내용	횟수(날짜)	내용
2013.10.31	된장만들기 교육	년1회	마을 고사 지내기
분기별	평생학습 / 사물놀이 교육	매년 9월~10월	마을공동체 임산물(버섯)채취
년1회	송년의 밤	2020.10.10	주민 초청콘서트
년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동네극장'	년1회	노인회 야유회
매년 음력 1.14	산신제	2021.1.14	두부만들기
2020.6.25.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수시	상천리 자연 가꾸기 관련 주민자치회의
수시	용두라이온스클럽 단체협력		

### 2. 경관 활동 실적(수시정화작업제외 연별 정기행사 기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현재)
활동횟수(회)	3	4	5	4	5	5	3
참여인원(명)	105	117	115	106	132	89	55

### 3. 마을공동소득&지출

(단위 :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현재)
버섯채취(송이,능이)	6	6	6	6	6	6	-
상천특산물판매장	8	9	8	8	8	2	1.16
장수연금지급	-	0.5	0.5	0.5	0.5	-	-

### 4.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친환경민속마을조성	21	2003~2013	수자원공사	• 농업홍보관 • 참숯불가마 • 휴게식당조성
금수산녹색관광마을	87	2013~2016	제천시	• 상천휴게소 재건축
초경동소하천정비사업	36	2014~2017	제천시	• 초경동소하천 정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5	2014~2017	제천시	• 약선장류체험장
살기좋은마을만들기	0.18	2020	제천시	• 깨끗한 시골넷가 만들기
마을만들기종합개발	10	2020~2022	제천시	• 마을공동주택 및 복지센터조성



“ 소나무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 초곡리마을 ”





**동상**      **경관·환경**

##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마을

주민들이 한 그루씩 손수 심은 소나무가 한 폭의 그림처럼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이 되었고 마을의 소중한 자원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 ‘초곡리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 1길 7



**인구수**

256 명



**가구수**

126 가구



**마을 자원**

초곡마을 솔밭, 마을 보호수, 초곡저수지, 블루베리, 된장, 고사리 등



**행복마을 성공비법**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모사업 선정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
- 지역 자원의 보존을 넘어 적극적인 활용방안 도출





초곡리마을은 마을 뒤쪽으로는 비봉산이 우뚝 솟아있고 마을 앞으로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운치있고 고즈넉한 초곡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선대부터 초곡천을 따라 한 그루씩 심어오던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한폭의 그림 같은 곳입니다. 마을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솔밭 산책로는 원래 볼품없던 마을 공간에 주민들이 한 그루씩 심어 스스로 만들어낸 자원으로 소나무밭과 황금빛 들녘이 어우러져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풍경을 자랑합니다.

초곡리마을은 초곡천 가로수길과 초곡저수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단합된 주민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수상, 농촌노인건강생활지원 사업 선정 등의 결실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초곡마을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부터 마을에 축사가 생기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 찾아오던 방문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마을은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마을 자치 규약을 마련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마을 관리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생하는 마을로 변화하였습니다. 초곡리마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솔밭길을 걷는  
고즈넉한  
여유로움  
**초곡리마을**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모사업 선정

마을 경관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하나 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 주변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여러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농촌노인건강생활지원마을 선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구미시 대표 선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등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

마을 솔밭의 아름다운 경관을 저해하는 축사가 들어서기 시작하며 마을을 찾는 방문객도 줄어들고 경관 저해, 악취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오히려 주민들이 더 결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관을 저해하는 축사를 활용한 목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지역 자원의 보존을 넘어 적극적인 활용방안 도출

경관 활동을 통해 마을의 대표적인 자원인 초곡마을 솔밭을 정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곡마을 솔밭 축제 개최, 구미시 승마길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 대표 목장 체험장 풀마실을 활용하여 신규 축사와 연계한 목장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마을 주민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

상생으로 함께 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면  
위기도 기회로  
극복할 수 있어요

”



## 초곡리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A

우리 마을의 대표 자원인 솔밭은 선대부터 직접 가꾸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보조사업 등을 통해서 한 번에 심어졌지만 우리 마을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그루씩 심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초곡마을 솔밭과 관련된 일화로 6.25 전쟁 때에도 소나무 덕분에 인민군에게 발각되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중심에 있는 초곡저수지 중앙에는 식물섬이 있어서 색다른 운치와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이 두 곳은 꼭 와서 보셨으면 합니다.

-마을 대표 박취진

Q

앞으로 5년 후, 초곡리마을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A

우리는 예전에 없던 솔밭도 만들어냈고, 축사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기였던 축사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5년 후에는 경관이 아름다운 솔밭 마을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 마을, 방문하고 싶은 마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귀농·귀촌인과 협력하여 방문객들에게 경관으로 힐링하고, 체험으로 즐길 거리가 많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5년 후에는 오고 싶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기 힘든 마을이 되어있지 않을까요?

-마을 대표 박취진



## 마을사업성과

### 1. 방문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방문객수(명)	290	350	260	200	250

### 2. 귀농·귀촌 인구

연도	2017	2018	2019	2020
귀농·귀촌 가구(호)	11	8	12	24

### 3. 경관 활동 실적

연도	2017	2018	2019	2020
경관 활동 실적	연 2회 (솔밭가꾸기)	연 2회 (솔밭가꾸기)	연 2회 (솔밭가꾸기)	연 2회 (솔밭가꾸기)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초곡 소하천 정비공사	2,700	2011~2012	구미시	• 산책로, 징검다리, 목교, 쉼터 등 조성
옥성면 초곡리 복지회관 건립	547	2017	구미시	• 송조당 건립과 연계한 복지회관 건립
농촌노인 건강생활 지원마을	100	2018	구미시	• 건강관리 및 취미과제 교육 운영, 환경정비활동, 소득활동(방앗간) 조성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500	2020~2022	농림축산식품부	• 어울림마당 조성, 초곡천 경관 개선, 무선마을방송시스템 등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30	2020	농림축산식품부	• 빈집 리모델링 후 농촌마을 및 협의체에서 귀농인 임차



“ 자연과 사람,  
별빛이 머물다 가는

**청옥산개비마을** ”





**입선**      **경관·환경**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개비마을**

마을의 특색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천혜의 수려한 경관을 마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 모두가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옥산개비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수리재길 21



**인구수**

97 명



**가구수**

45 가구



**마을 자원**

청옥산, 육백마지기, 용수골계곡, 개비마을야영장, 청린(난타팀)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 공동 실천 과제 “깨끗한 마을 만들기”
-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신재생 에너지 도입”
- 주민 주도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 활동”





"청옥산개비마을"은 한국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해발 1,250m에 위치한 육백마지와 용수골계곡 등 수려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도깨비 설화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만 같은 마을!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을! 농촌의 정 문화를 바탕으로 마을 도로변, 내 집 앞, 마을공동 시설물을 주민 모두가 수시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 사시사철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청옥산개비마을은 주민의 57%가 고령이고 규모도 아주 작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작고 활력을 잃어가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발전시키고 주변의 아름다운 명소를 널리 알려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2011년에 "청옥산개비마을"이라고 마을 이름을 짓고 모든 주민들이 합심하여 자연이 숨쉬는 마을, 테마가 있는 마을, 인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인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캠핑장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자연친화적 마을 이미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이용으로 2013년에는 강원도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행복한 동업  
**청옥산개비마을**





### 마을 공동 실천 과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주민들은 2013년 4월 8일에 마을 정관 제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주민의) 각④항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마을회의, 마을 대청소, 마을 행사 등)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마을 공동 사업이나 공동체 활동이 있을 때에는 개인의 사정보다 마을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마을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신재생 에너지 도입”

자연이 선물한 천혜의 자연 경관을 마을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마을 곳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정원을 꾸며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밤이 더 빛나는 마을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주민 주도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 활동”

마을의 강점인 천혜의 자연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육백마지기와 용수골계곡 등 마을 내 환경 정비 활동을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을 행사에는 모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세심한 관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자발적인 여행 문화 에티켓을 고양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방문객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알프스에서 만나는  
천혜의 자연 경관  
맑고 깨끗한 폭포수와  
반짝이는 별빛 속에  
행복한 개비들의  
요술이 시작돼요

”

## 청옥산깨비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청옥산깨비마을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마을의 해발 1,250m에 위치한 육백마지기와 수려한 용수골 계곡 등 다양한 경관 자원은 때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여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되고 부각될 수 있도록 환경 정화 및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여행 에티켓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이 준 선물인 경관의 보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마을 난타팀 공연과 별빛축제 등을 선보여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을 사무장 홍양미

Q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A

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마을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의견이 나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함께 문제점을 해소하고 마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마을 주민들은 개인의 사정보다 마을 일을 먼저 챙기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임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을 사무장 홍양미



## 마을사업성과

### 1. 마을공원 조성 실적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마을공원조성	5건	1건	0	1건	5건
참석가구	87	26	0	32	90

### 2. 마을경관조성 실적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마을경관조성	4	4	4	5	5
참석가구	71	71	71	103	103

### 3. 마을환경정화 활동 실적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마을환경정화활동	2(3)	2(3)	2(5)	2(5)	2(7)
참석가구	55(6)	77(12)	48(15)	56(12)	80(26)

### 4.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아름다운마을가꾸기	3	2020	평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태양광 정원등 설치</li> <li>• 노후안내판 리모델링</li> </ul>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도비)	20	2020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영장편의시설확충</li> </ul>
마을공동체지원사업	5	2020	평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타강습추진</li> </ul>
기업형새농촌 선도마을	200	2019~2020	평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라반2대</li> <li>• 숲체험장</li> <li>• 산책로</li> <li>• 별빛축제기획 등</li> </ul>



“ 후손에게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산촌마을** ”





**입선**      **경관·환경**

### 남원시 수지면 산촌마을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하천을 지금 모습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귀농·귀촌·귀향인과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산촌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산촌마을



**인구수**

57 명



**가구수**

28 가구



**마을 자원**

백일홍길, 소나무길, 복숭아, 청양고추, 홍고추, 상추



**행복마을 성공비법**

- 작은 일이라도 마을 일을 주민 회의를 통해 진행
- 귀농·귀촌인과 화합 및 출향인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 마을 경관 조성, 돌 모자이크로 꾸민 산촌 동물원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의 산촌마을은 28가구에 58명의 주민들이 견두산 자락을 바라보며 따뜻한 온정과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간직한 채 오순도순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게 된 지 10년이 안됐을 정도로 시골 오지였던 산촌마을은 담장이 돌로 둘러싸여 있으며 노후화되고 침체되어 큰 변화의 계기가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귀촌하신 주민의 모자이크 벽화 재능기부 덕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합심하여 노후화된 담장에 동물 모자이크 벽화를 붙이며 돌 모자이크로 아름다운 동물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마을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가 소문나자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에 소나무, 백일홍을 추가로 보식하고 화단을 재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산촌마을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옛 추억을 되살리는 물레방아, 주민 휴게 공간인 산촌정, 산촌 박물관 향아리 전시, 구 회관 정비 등을 통해 마을을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은 후손에게 지금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 출향인에게는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하천변 꽃길 조성, 회관 앞 소공원화 추진, 수해 취약지구 인공폭포 조성 및 분수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의  
휴식 같은  
산촌마을





### 작은 일이라도 마을 일은 주민 회의를 통해 진행

산촌마을은 민주적입니다. 이장은 독단적인 리더십이 아닌 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장의 솔선수범 아래 모든 주민들은 하나가 됩니다. 마을의 중요한 일과 행사는 주민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주민의 동의 없이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항상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이것은 곧 산촌 주민의 관심과 화합, 그리고 열정을 보여줍니다.

### 귀농·귀촌인과의 화합 및 출향인들과 지속적 유대관계

산촌마을은 귀농·귀촌·귀향인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원주민들은 진심으로 귀농·귀촌인을 산촌 주민으로 받아들이며 이분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향인들과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언제든 마을에 돌아왔을 때, 고향의 따뜻한 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십시일반 도움도 주고, 참여도 하며 지금처럼 아름다운 마을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 마을 경관 조성, 돌 모자이크 벽화로 꾸민 산촌 동물원

마을의 이색 볼거리인 돌 모자이크 벽화는 귀촌 주민이 앞장서서 시작하고 이후 모든 주민들이 합심하여 마을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함께 돌을 줍고 손수 돌을 붙여가며 노후화된 담장을 돌 모자이크 동물원, 식물원으로 산뜻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산촌마을을 구석구석 재정비하게 되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고 또한 특색 있는 볼거리로 인해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 더욱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주민들이 합심하여  
모양도 색도 제각각인  
돌멩이를 고르고 붙이니  
기린도 되고 말도 되어  
우리 마을의 독특한  
담벼락 동물원이 되었어요

”



## 산촌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생소한 돌 모자이크 벽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A

깨끗한 환경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던 마을에 귀향인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약 4개 월 정도 자기 집 벽을 돌 모자이크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집을 지나다니며 보고 '아! 저런 작품을 우리 마을에도 해보자'하고  
마음먹게 되었고 그 귀향인의 도움을 받아 꾸민 담장의 돌 모자이크는 이제 산촌마을의  
대표적인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담을 허물어 돌모자이크의 밑바탕이 되게  
벽을 미장하고, 주민들이 직접 돌을 주워 나르고, 밑그림을 그려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돌 모자이크 벽화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 이장 오현준

Q

앞으로 마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A

후손들에게 지금의 아름다운 마을과 더욱 개선된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첫째,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안길 정비, 감절천 보수,  
하천 오페수 정비 등 주변 환경을 가꿔 나갈 것입니다. 둘째, 산촌정 앞을 공원화하여  
주민 및 방문객의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이 편안한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셋째,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나무길, 백일홍길을  
잘 관리하고,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한 갈대등 설치, 그리고 매년 수해를 입는  
덤바위산에는 인공폭포를 만들어 마을 경관을 가꿔 나갈 예정입니다.

-마을 이장 오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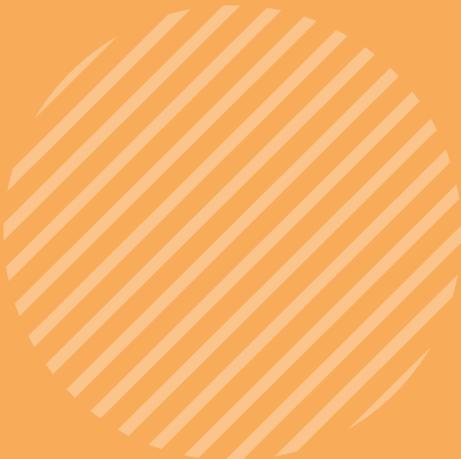
## 마을사업성과

### 1. 경관 개선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백일홍길 조성	2009~	산촌마을	• 마을 진출입구 꽃길 조성
돌담 모자이크	2018~	산촌마을	• 산촌 자연에 어울리는 이색 돌담 벽화 조성
소나무길 조성	2018~	산촌마을	• 마을 뒷산 소나무와 연계한 소나무길 조성(172주)
산촌 물레방아 건립	2018~	산촌마을	• 옛날에 있었던 물레방아를 현대식으로 재현
산촌정 건립	2019	산촌마을	• 주민 휴게 공간
구회관 리모델링	2020	산촌마을	• 새로운 회관 건립으로 방치되어 미관상 안 좋은 구회관 정비
향아리 산촌 박물관	2021	산촌마을	• 마을의 이색 볼거리
주변환경 정비	지속사업	산촌마을	• 농약병 수거 • 하천 및 진입로 제초작업 • 마을 안길 정비 등

### 2. 공동체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주민 역량강화	2005	산촌마을	• 선진지견학, 마을의 나아갈 길 제시
테라리움 화분, 에코백 만들기	2020	남원시	• 환경의 중요성 교육
마을 이음 프로그램	2021	남원시 농촌 종합지원센터	•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사업 발굴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
주민재능기부	2020~2021	산촌마을자체	• 재봉틀, 공예, 탁구교실 등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티센터	<b>금상</b>	10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마을지기목공소	<b>은상</b>	112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마을호텔18번가	<b>동상</b>	118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영주소백산예술촌	<b>입선</b>	12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마을만들기지원센터	<b>입선</b>	130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 이서커뮤니티센터 ”





**금상**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티센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입학하는 학생이 없어  
잡초만 무성하던 마을의 애물단지에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 '이서커뮤니티센터'를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백아로 3114



**인구수**

119 명(65 세 이상 고령자 57 명)



**가구수**

87 가구



**마을 자원**

적벽, 은행나무, 시무지기폭포, 규남박물관



**유휴시설 활용 성공 비법**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시설 운영
- 주민 화합 및 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 미래세대의 유입을 위한 시설 활용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에 위치한 '이서커뮤니티센터'는 화순 동면 중학교의 이서분교였습니다. 과거 두 개 면이 합쳐져 제법 큰 면이던 이서면은 1960년대 이촌향도의 물결과 1980년대 후반의 폐광, 동북댐 수몰, 잠업 사업의 쇠퇴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감소로 더 이상 신입생을 맞을 수 없게 된 이서분교도 2008년 폐교되었습니다. 폐교 후 이서분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관리도 소홀해져 잡초만 무성한 폐건물로 방치되어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중심이자 자랑이던 이서분교를 지키고 마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이서분교를 구입하고 농림부 공모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병모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된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서커뮤니티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경로잔치, 송년회, 음악회 등이 열리는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적벽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쉼터가 되고, 교육 및 교류의 공간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과 주민, 방문객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무등산 자락 생명이 다시 숨 쉬는 이서커뮤니티센터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시설 운영

마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잠업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뽕과 누에를 가공한 제품들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농산품과 지역 특산품의 판매로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보, 교육 체험, 숙박 식사, 시설물 관리 분과별 전담 인력 12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 화합 및 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이서커뮤니티센터는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서 다목적실, 공유 식당, 야외공연장 등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뽕모실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난장은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어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과 행복한 농촌 만들기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 미래세대의 유입을 위한 시설 활용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농촌의 위기 속에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귀농·귀촌인, 청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마을학교”, “농촌유학”, “청년 마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농촌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잡초 가득한 폐교를  
마을 자원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으니  
마을을 떠났던  
활기와 웃음이  
돌아왔어요

”



## 이서커뮤니티센터, 이것이 궁금해요!



Q

이서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과거의 이서면은 두 개 면이 하나로 합쳐져 7,500여 명이 살던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어 현재는 약 1,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2008년에는 이서분교도 폐교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마을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주민들은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고, “다시 사람이 와서 살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서분교를 마을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번영회장 오병식

Q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A

먼저 마을 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연로하신 주민들이 본인들의 생계를 위한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공동체 일에 참여하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왕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 중간에 지지치 않고 꾸준히 공을 들이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결과물이 미약해서 노력 대비 성과물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마을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 조유성



## 시설소개

### 활용시설

구분	공간	활용
1층	사무실	• 고객상담
	소회의실/체험실	• 작은도서관 • 휴게쉼터 • 목공예 등 체험프로그램
	식당	• 경로잔치 • 농촌유학 • 전남에서 한달살기 식사제공 및 음식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2층	다목적실	• 회의 • 교육 • 송년회 • 학예회
	숙박시설	• 농촌유학 숙소
외부	야외 공연장	• 마을행사 • 음악회 • 기타 공연
	운동장	• 적벽투어버스 정류장 • 난리법석장 운영



소회의실



식당



체험실



다목적실



야외무대



운동장



“ 똑딱똑딱  
행복을 짓는

# 마을지기목공소 ”





**은상**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 합천 마을지기목공소

사람과 함께 늙어가던 마을의 유휴시설이 주민들의 취미 활동과 목공 교육의 산실이 되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희망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지기목공소’를 소개합니다



**시설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운영주체**

합천 마을지기목공소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방법**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보조 - 자체운영  
건물 및 장소제공 - 합천군



**활용시설**

우드 버닝 교육 및 체험장, 목공예 교육 및 체험장,  
전시복합 커뮤니티 공간



**유휴시설 활용 성공 비법**

-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화합
- 관계 기관들과 연계한 사회 공헌활동
- 교육을 통한 전문가 배출 및 일자리 창출





합천은 농촌 마을들 중에서도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사람과 주택이 함께 늙어가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피폐해 지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마을의 목공 전문가들이 함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불씨들이 모여 열악한 주거 환경에 온기를 퍼뜨리며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지기목공소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원래 합천 경찰서의 관용 차고지였지만 유휴시설로 전략해 비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2015년 합천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모아졌고 공간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마을지기목공소가 탄생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목공, 우드버닝 교육 등을 시작하며 합천읍의 대표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지기목공소는 농촌 지역의 목공을 활성화하고 배후 마을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품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소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집 고쳐주기 행사, 발달장애 학생 대상의 목공교육 등 다양한 봉사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얻어진 판매 수익금을 지역에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합천형 생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  
마을지기목공소





##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화합

자체 교육을 통해 육성된 재능기부 강사를 활용하여 목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드아트 버닝 등 교육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공 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를 지원하는 등 공동체의 교류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공예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소규모 지역 축제인 우드마켓 행사를 통해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관계 기관들과 연계한 사회 공헌활동

마을지기목공소는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집수리 및 가구 지원, 공공시설물 지원 및 수리, 지역 발달장애 학생 대상 목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 기관들과 연계하여 청소년 자기개발, 다문화 가족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기부, 우드마켓 수익금 기부로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교육을 통한 전문가 배출 및 일자리 창출

마을지기목공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목공 전문가는 목공 지도사 1급 6명, 목공 전문가 39명, 우드아트 버닝 전문가 40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배출된 전문 인력들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나 마을학교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목공예와 우드아트 버닝을 접목해 주문 제작을 수행하는 전문 목수 등 인력 배출로 이어져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목공을 통한  
나눔과 봉사,  
자연과 하나 되는 땅  
합천에서  
목공 공예의 성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

## 마을지기목공소, 이것이 궁금해요!



Q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목공 및 우드아트 버닝 교육 수강료와 목공예품의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상시 판매가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여 이를 통한 지속적인 판매 수익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 중 50%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시설물 수리 및 제작,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교육, 우드 트럭을 활용한 배후 마을 지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회 공헌 활동은 그 자체로서 홍보 효과로 작용하여 더 많은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써 수익과 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소장 최종욱

Q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마을지기목공소의 혜택을 합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내에 있는 상위 거점 지역에 유희시설 등을 활용한 마을지기 목공소 분점을 개설하고, 이동식 목공소인 "우드 트럭"을 활용하여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배후지역 주민들도 목공을 즐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합천 지역의 자재를 활용한 목공 제품과 합천을 테마로 하는 지역색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한 합천형 목공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소형 목조주택 키트 제작과 공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팀장 최창열



## 시설소개

### 활용시설

공간	활용
우드버닝 교육 및 체험장	• 전문가 양성 • 취미반 • 공공시설 지원
전시복합 커뮤니티 공간	• 우드버닝 및 목공예 판매 • 회의실 • 휴게실
목공예 교육 및 체험장	• 기능사 양성 • 취미반 • 취약계층 목공예가구 지원 • 공공시설지원

\* 서비스거점 조성사업[테마형]으로 선정되어 일부 공간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음(202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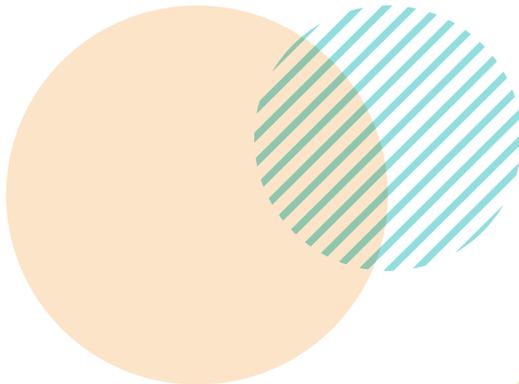
마을지기 북카페



교육장



사무실



“ 호텔이 된  
탄광마을,

마을호텔18번가 ”





## 동상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폐광 이후, 광부들이 떠난 광산촌에는  
빈 집이 늘어가고 빛도 바랬지만  
주민들은 담벼락을 칠하고 골목에 꽃을 피우며  
기적 같은 18번가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호텔 18번가’를 소개합니다



#### 시설위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2길 36



#### 인구수

203 명(65 세 이상 고령자 53 명)



#### 가구수

117 가구



#### 마을 자원

골목길 정원박람회, 함백산 야생화축제, 정암사 수마노탑,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고한 구공탄 시장, 고한 공영주차장



#### 유휴시설 활용 성공 비법

- 주민 주도로 정선군의 모두가 함께한 “18번가의 기적”
- 누워있는 호텔, 연결하고 연결하고 끊임없이 연결한다
-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





화사하게 펼쳐지는 꽃길이 골목길에도 산자락에도 지천입니다. 마을과 골목길이 모두 모여 호텔이 된다는 의미로 '누워있는 호텔'이라 불리는 18번가의 기적, 정선 "마을호텔18번가"는 야생화로 유명한 정선군 고한읍 고한 18리에 위치한 작은 산골마을입니다. 과거 광산이 있던 시절에 마을 주변은 상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하여 밀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영도 잠시, 폐광 이후 마을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부터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스스로 빈 집 정비, 유휴공간 활용, 골목길 정비 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마을 풍경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주민들은 마을의 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상하고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선군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마을 호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미 영업 중이던 골목상점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호텔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의 골목길은 호텔로 들어서는 로비가 되고, 민박집은 객실이, 중국집은 호텔 중식당, 마을회관은 작은 컨벤션룸이 됩니다. 2019년부터는 마을 호텔 플랫폼 "마을호텔 18번가"를 통해 고한읍 18리의 마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급격히 쇠락하던 폐광촌에서 피어난 희망 마을호텔 18번가





## 주민 주도로 정선군 모두가 함께한 “18번가의 기적”

마을 재건을 외부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주민들은 스스로 한 집 한 집, 빈 집 정비를 시작하고 버려진 공간 활용, 골목길 정비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시작된 “마을호텔18번가 협동조합”은 ‘고한18번가 마을만들기위원회’, ‘3·3 기념사업회’, ‘정선군’,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가 및 협력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 누워있는 호텔, 연결하고 연결하고 끊임없이 연결한다

마을의 변화를 촉발하는 매개체로서 고한읍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인 “마을호텔18번가 협동조합”은 마을 방문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 사업과 사업을 이어주면서 마을 경제의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

마을호텔18번가는 앞으로도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및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마을 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정선 여행의 편의성 개선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마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기업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

야생화 가득한  
골목길이  
산책로이자  
호텔 로비가 되는  
18번가의 기적,  
우리 모두 꽃길만 걸어요~

”



## 마을호텔18번가,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 마을호텔18번가의 활용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A

마을호텔18번가의 최종 목표는 정선 여행을 위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마을 안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상점, 관광지, 문화와 역사, 예술에 이르기까지 정선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을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 호텔 숙박 고객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마을 여행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와 함께 고객 만족도와 마을 호텔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면 방문객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마을호텔은 쇠퇴일로의 폐광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훌륭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호텔18번가 협동조합 김진용 이사

Q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나요?

A

하늘 기획, 마을회관, 마을호텔18번가, 들꽃 사진관, 카페 수작 등 골목길에 접해 있는 주택가와 상가를 주민들 스스로 청소하고 집 앞 화단을 꾸며 마을 정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 집 앞과 골목길 전체가 아름다운 꽃으로 조성된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주민들의 힘으로 열고 있습니다. 야생화와 다육이, 엘이디 꽃 등으로 장식하고 체험행사를 곁들인 정원박람회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을에 대한 애착심, 삶의 질 향상 등 부가적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목길 정원박람회 한우영 회장



## 시설소개

### 활용시설

구분	공간	활용
주요 시설	마을호텔18번가	• 호텔 객실 • 프런트 • 휴게실
	마을회관	• 회의 및 교육 • 야생화 전시 및 판매 • 체험장 • 화장실
	하늘기획	• 마을호텔 안내센터 • 체크인과 고한여행 안내
	들꽃사진관	• 가족사진 • 인물사진 • 스냅사진 촬영
	카페 수작	• 카페 • 수공예 전시 및 판매 • 수공예 교육 • 화장실
	살롱 83	• 화장품 • 의류 • 기념품 판매
	국일반점	• 마을호텔 중식당(자장면데이 운영)



마을호텔 객실



마을회관



하늘기획



카페 수작



살롱 83



국일반점



“ 행복을 선사하는

# 영주 소백산예술촌 ”





**입선**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 영주 소백산예술촌

어울림의 즐거움이 있는 문화 예술 체험의 장  
오감만족 즐거움이 가득한 자연 속에서  
열린 공간이자, 마을의 쉼터로서  
지역 문화를 가꾸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영주 소백산예술촌’을 소개합니다

-  **시설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영부로 71-5

---

-  **인구수**  
168 명(65 세 이상 고령자 82 명)

---

-  **가구수**  
87 가구

---

-  **마을 자원**  
지역특산품 - 영주 사과  
인접 관광지 - 콩세계과학관, 부석사

---

-  **유휴시설 활용 성공 비법**
  - 마을 축제 및 예술 활동의 장
  - 문화예술 시설이자 관광시설로 활성화
  - 농촌지역이라고 문화를 즐기지 못할 것이 없다





영주소백산예술촌은 경북 영주시 부석면 임곡 2리에 소재한 문화 예술 창작 시설입니다. 2001년 개교 이래 1,55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석북부 초등학교”가 폐교된 후, 2002년 1대 촌장故 조재현 선생이 손수 깨진 창문을 교체하고, 운동장의 잡초들을 정리한 것을 시작으로 새롭게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소백산예술촌은 옛 학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문화를 가르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발전과 마을 주민들의 활발한 문화 경험을 목표로 했던 1대 촌장님의 의지는 2대 촌장과 젊은 예술인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의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축제, 문화 행사, 여행 프로그램, 포럼, 공연 등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던 지역 학생들은 이곳에서 국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노력으로 지금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주소백산예술촌은 대도시와의 문화, 예술적 격차를 줄여나가고 좀 더 젊은 감각으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꿈을 키우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과 체험의 장 소백산예술촌





## 마을 축제 및 예술 활동의 장

홍물이 될 뻔한 부석 북부 초등학교를故 조재현 촌장님이 살려내고, 마을주민들은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예술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술촌은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 장소로써 활용되며, 2006년 예술촌의 모듬북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마을 난타 공연팀 “락&무”의 연습 장소 및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 시설이자 관광시설로 활성화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상북도 야간관광 프로그램 “풀 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야간 여행”으로 유교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 공간 제공을 통해 상주 예술인을 유치하고 있으며, 마을의 특산품인 사과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상품 홍보 등으로 마을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농촌지역이라고 문화를 즐기지 못할 것이 없다

지역 아이들의 문화예술 경험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와 동네 난타동아리인 “락&무”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대도시와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후, 예술촌을 방문하는 누구나가 언제든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폐교에서 묵묵히 일군  
문화와 예술 한마당  
덩더쿵~ 덩더쿵  
온 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어울림이  
되었어요

”

## 영주 소백산예술촌, 이것이 궁금해요!



Q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A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지원도 없이 지난 20년간 묵묵하게 마을과 지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만들어낸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 “영주소백산예술촌”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큰 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홍보를 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의 작은 동네인 부석면 임곡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랐고, 우리 시설과 마을이 더욱더 활기차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여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성과로 본선 진출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2대 촌장 조국원

Q

마을 주민이자 졸업생으로서 예술촌은 어떤 곳인가요?

A

부석 북부 초등학교는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폐교가 되어 없어질 뻔했지만 우리 곁에 이렇게 모교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소백산예술촌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으니 예술촌은 마을을 활기차게 해주는 행복한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곳에 모여서 마을의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고 동문 행사, 운동회도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난타 공연단도 생겼으니, 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전국에서 방문하는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금경애



## 시설소개

### 활용시설

구분	공간	활용
예술촌 시설	연습실	• 마을 타악기 동호회 “락&무”와 예술인들의 연습장소
	주방	• 상주 예술인 조리실
	음악실	• 손님 맞이 및 휴식공간
	사무실	• 사무업무 공간
	비품실	• 각종 비품 보관
	의상실	• 공연관련 의상 및 소품 보관실
	손진책 & 김성녀 자료 보관실(소품제작실)	• 극단 미추 대표 손진책과 배우 김성녀의 자료 보관실, 소품제작실 겸용 사용중
	제작창고	• 무대 및 소품 제작 공간



연습실



음악실



비품실



의상실



손진책&김성녀 자료 보관실



제작창고



“ 마을마다 웃음 가득

#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입선**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 간 갈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농촌 활력의 거점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원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 등  
 유휴시설 활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시설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김유신길 116-15



**운영주체**

사단법인 지역창생네트워크



**운영방법**

민간위탁 -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입주 및 활동가 상주



**마을 자원**

호연지기관, 연꽃관, 화랑숙



**유휴시설 활용 성공 비법**

- 주민들의 소통 창구, 중간 지원조직 운영
- 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치된 시설물에서 다시 찾는 공간으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와 연곡리 일원에 위치한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 갈등으로 1년 이상 활용이 중단되어 있던 화랑촌 권역 시설물을 농촌 활력 거점으로 재정비한 모범사례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배움과 소통의 창구로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고, 행정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여 협력하는 과정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 사례 검토를 통해 진천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농촌마을 관련 정책이 행정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주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자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 만들기 정책 발굴, 주민 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과 더불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유휴시설 활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을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 조직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생겨진천 마을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생겨진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주민들의 소통 창구, 중간 지원조직 운영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과 전문가의 협조,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마을 만들기 정책 발굴,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대내외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농촌마을의 배움과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 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센터 설립 이후 상근, 비상근 포함 총 10명이 고용되었고, 13명의 주민활동가(블로그 기자단, 현장활동가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 응대 및 관리가 필요한 곳에 마을 주민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운영하여 새로운 일거리도 창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주민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치된 시설물에서 다시 찾는 공간으로

방치되었던 시설물이 진천군민을 위한 지원시설로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난 1년간 센터에서는 각종 회의 및 간담회 61건, 상담, 컨설팅 39건 등이 이루어졌으며, 연꽃관 월 2~3회, 화랑속 분기별 1~2회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천 문인협회, 화랑 민속보존회 등 지역의 동아리나 민간단체에서 관심을 보이며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횟수와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주민 곁에 가까이  
맞춤형 지원센터의  
마을 전문가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배움과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요

”



## 진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것이 궁금해요!



Q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전국적으로 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치된 시설물을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은 자원의 활용 면에서나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례는 우리 마을만의 성과가 아니라 다른 마을의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다른 지자체에도 알려 전국적인 확산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박현춘

Q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A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활성화되면서 화랑촌 권역 주민들이 다시 친근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런 주민들의 재능과 수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이에 맞게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3년 안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방치되어 있던 화랑촌 권역의 시설물을 더 발전적인 형태로 만들어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사무국장 송준숙



## 시설소개

### 활용시설

공간	활용
호연지기관	• 진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실 및 교육장
연꽃관	• 교육시설(80명 수용)
화랑숙	• 숙박시설(4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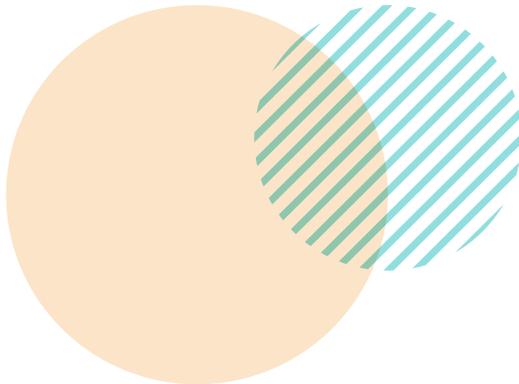
호연지기관



연꽃관



화랑숙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금상** 138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은상** 144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동상** 150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입선** 156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입선** 162



“ 달빛 가득 문화가 흐르는

#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금상**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남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활력 있는 농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함평군 월야면’을 소개합니다



**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491



**주요사업**

H/W : 달맞이문화센터 조성, 보행로 조성 및 데크난간 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5 일시장 주차장 조성, 월야산 주변 정비, 상가간판 정비 등

S/W : 리더 육성, 리플렛 제작, 홈페이지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 등



**주변시설**

월야전통시장, 함평로컬푸드 직매장, 월야초등학교, 면민복지회관 등



**지역개발 성공 비법**

- 자체적인 문화 동아리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
- 음악회, 재능나눔 바자회, 풍년기원제 등 공동체 행사 확대
-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타 부처 공모사업 등 연계 추진





달빛이 아름다운 마을 월야면은 광주광역시의 연접 생활권으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향후 7천여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2026년까지 1만 호 주택 건설, 3만 명 인구 달성으로 월야읍 승격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의 생활 SOC 확충과 서비스 강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 있고 특색 있는 농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함평군 제2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명처럼 유순하고 등근 주민들의 성향은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0년 사업자 선정, 2011년 기본계획 승인, 2014년 하드웨어 사업 완료, 2015년 소프트웨어 사업 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된 달맞이 문화센터는 부지 매입을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였고, 지역 브랜드 '달빛월야'를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한 주민 참여형 건축물로 완성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상인회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과 재능 나눔 바자회 수익금 등을 통해 운영 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야면은 주민의 행복을 제1순위로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등근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함평군 월야면**





### 자체적인 문화동아리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

월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달맞이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요가, 노래, 사물놀이, 라인댄스 등 다양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변경으로 누적 회원 수는 3천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센터 내부의 급식소에서는 매월 3회,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연평균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음악회, 재능나눔 바자회, 풍년기원제 등 공동체 행사 확대

매년 추석 달맞이 가요제, 11월 재능나눔 바자회, 12월 달맞이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 동아리의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이 진행됩니다. 수익금은 전액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및 시설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이후 대보름 달집 태우기, 길굿, 풍년기원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타 부처 공모사업 등 연계 추진

본 사업과 연계 추진한 공중목욕탕은 배후 마을 주민들까지 방문하여 연평균 5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며 연평균 6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빛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월야면의 거점성 및 서비스 공급 기능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주민들 모두가  
십시일반 힘을 모아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 모두의 문화와 여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만들었어요

”



## 함평군 월야면, 이것이 궁금해요!



Q

중심지 거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A

소재지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달맞이 문화센터는 약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635.42㎡ 규모로 신축되었습니다. 부지 매입을 위해 주민들은 6천 7백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역브랜드 '달빛월야'를 반영하여 달의 곡선을 형상화한 건축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언제나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맞이 목욕탕도 지역 주민 누구나 문화와 복지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농촌 개발팀장 김용민

Q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기를 바라시나요?

A

월야면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기대됨에 따라 2026년까지 1만 호 주택 건설과 3만 명의 인구 달성으로 월야읍으로의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제2의 중심지로서 품격 있는 월야면, 살맛 나는 월야면이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SOC 확충, 서비스 기능 강화로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쇠퇴 등 농촌 마을이 겪고 있는 당면 과제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가 있는 월야면, 주민들이 행복한 월야면으로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농촌 개발팀장 김용민



## 사업성과

### 1. 지역 인구 증가

연도	2010	2011(사업착수)	2014(사업준공)	2020(현재)
인구수(명)	4,431	4,387	4,097	3,725
사업이 준공된 2014년 이후 인구감소를 크게 저하. (2015년 이전 연평균 3%▶2015년 이후 연평균 1.5%)				

### 2. 연간 문화행사 개최 수

연도	2010	2011(사업착수)	2014(사업준공)	2020(현재)
문화행사	3	3	10	14

### 3. 공공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연도	2017	2018	2019	2020(현재)
문화서비스 수혜마을(개소)	7	9	13	13

### 4. 문화동아리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등록 회원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등록 회원
요가(월8회)	월, 금	13:00~14:30	46명	천연비누(월3회)	화	10:00~12:00	20명
노래교실(월4회)	목	12:30~14:30	47명	건강체조(월8회)	수, 금	10:00~11:00	100명
사물놀이(월4회)	목	19:00~21:00	23명	스포츠댄스(월 8회)	화	14:00~17:00	20명
라인댄스(월4회)	화	10:30~12:00	25명	에어로빅(월12회)	화, 수, 금	19:30~20:30	20명
한지공예(월3회)	수	10:00~12:00	20명	캘리그래피(월4회)	수	13:30~14:30	20명
기타반(월3회)	금	10:00~11:00	20명				

### 5. 연계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월야면 작은목욕탕 조성 사업	500	2014	농림축산식품부	공중목욕탕 조성
빛그린산단 조성	605,900	2009~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
월야 영월지구 도시개발사업	46,517	2019~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단지 개발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3,000	2021~2023	문화체육관광부	실내체육관 조성
월야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800	2021~2022	월야면	공영 주차타워 조성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4,000	2021~2024	농림축산식품부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에코 힐링 중심지,

#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은상** 농촌지역개발사업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생태, 문화, 힐링을 키워드로 시작된 주민 주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의 사각지역이었던 마을에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배움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 '옥천군 동이면'을 소개합니다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63 일원



**주요사업**

H/W : 행복동이힐링센터, 휴게공원 조성,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S/W : 분재교실, 마을기자학교, 마당놀이교실, 아름다운 차 생활, 행복뽕뽕밴드, 작은도서관학교, 풍물교실, 마을라디오교육 등



**주변시설**

동이면사무소, 동이초등학교, 동이면보건지소 등



**지역개발 성공 비법**

- 주민이 주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동이면 전체를 연결하는 행복동이 마을 순환버스
- 협력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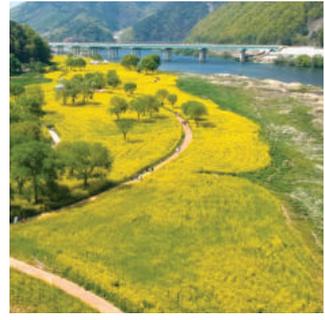


충북 옥천군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동이면은 옥천읍, 청성면, 군서면, 이원면, 안내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을 흐르는 금강 67.3km의 절반인 약 33.5km가 동이면을 거쳐 흐르고 있어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금강의 생태환경과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 등으로 올해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생태환경을 이루는 금강 수계와 수려한 산세 등은 역설적으로 동이면 22개 마을의 교통 여건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동이면은 이렇다 할 중심부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동이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한 행복동이 힐링센터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돌봄, 문화, 복지,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이면 금강수계 주민사업비로 구입한 행복동이 마을버스가 힐링센터를 중심으로 배후 마을의 아이들, 어른들의 발이 되어 각종 생활 서비스를 22개 전체 마을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초등학교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당놀이교실, 작은도서관운영, 방과 후 통합돌봄,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실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헬스장, 분재교실, 꽃차생활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동이 마을라디오 방송, (가)행복동이사람들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하나되는 더 큰 동이면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강의 맑은 물이  
마을을 감싸 안고  
반딧불이가 사는  
**옥천군 동이면**





## 주민이 주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전부터 동이면은 '좋은 이장학교'로 지역 리더들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 발굴로 이어져 행복동이 힐링센터라는 통합서비스 거점시설이 구축되었습니다. 센터 내 시설들은 모두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보다 공공성을 갖춘 동이면 힐링센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 동이면 전체를 연결하는 행복동이 마을 순환버스

행복동이 힐링센터의 돌봄, 문화,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전체 22개 마을로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수단이 행복동이 마을 순환버스입니다. 동이초 아이들, 배후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힐링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립니다. 버스 운영비는 동이면 금강수계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마을순환버스가 동이면 전체를 연결함으로써, 더욱 큰 동이면이 될 것입니다.

## 협력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옥천군 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행복동이 작은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의 통합 돌봄을 진행하고 어린이 신문도 제작하였습니다. 옥천 맛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어린이 요리교실과 로컬 간식을 지원하고 옥천군 평생학습원에서는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실도 운영 중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마을 라디오방송, 유채꽃밭 조성 및 축제 추진 등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스물두 개 마을의  
아이들과 어르신에게  
튼튼한 다리가 되는  
행복동이 마을버스 타고  
행복동이 힐링센터에서  
즐겁게 배워요

”

## 옥천군 동이면, 이것이 궁금해요!



Q

동이면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A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중심 거점인 행복동이힐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 '마당놀이 교실'입니다. 학교가 끝난 동이초 아이들은 학원이나 활동 공간이 마땅히 없었는데 행복동이 작은도서관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의 통합돌봄과 어린이 신문 제작 등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마당놀이 또한 지역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어울리는 건전한 여가와 자기 계발의 시간이 되고,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민이 모두 행복하게 즐기는 마당놀이는 충청북도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 김락종

Q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22개 마을이 모인 동이면은 특별히 중심지라 할만한 곳이 없었지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행복동이 힐링센터라는 통합 기능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센터 운영을 맡겨 성공적인 마을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주민과 행정이 더 큰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더 발전하는 동이면의 내일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다른 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 사업성과

### 1. 지역 인구 증가(중심지 5개마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인구수(명)	411	415	410	424	435

### 2. 공공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행복동이힐링센터 이용객(명)	0	0	0	0	1,000
문화서비스 수혜마을(개소)	0	0	5	22	22

### 3.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정규직 고용인원(명)	0	0	0	3	3

### 4. 연계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마을방과후 학교	20	2016~2018	교육부 (교육지원청)	• 마당놀이 교실 운영
돌봄형 마을학교	20	2021	교육부 (교육지원청)	• 어린이 신문 • 돌봄교실
동이면 평생학습센터	2	2021	옥천군 평생학습원	• 어르신 디지털문해교실
적화리 유채꽃축제	10	2017	옥천군	• 마을축제 지원 (2021 운영 취소)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0	2021	동이면 금강수계위원회	• 센터운영 순환버스 운영 지원



“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 함께 행복한  
**송악면 소재지** ”  
**종합정비사업**





## 동상

## 농촌지역개발사업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학원도 주민센터도 도서관도 없었던  
교육·문화·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농촌마을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문화와 복지를 나누며  
행복한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 '아산시 송악면'을 소개합니다



####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역촌길 24



#### 주요사업

H/W : 송악 마을공간 해유, 커뮤니티센터 1·2 관,  
교량보수, 중심가로 경관 개선 등

S/W : 주민 교육, 컨설팅 등



#### 주변시설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송악 보건지소, 송악 우체국,  
송남초·중, 송악면 환승센터 등



#### 지역개발 성공 비법

- '마을이 학교다' 마을 교육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농촌마을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아산은 맥킨지 리포트에 의해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로 선정되며 세계가 주목한 도시입니다. 사통팔달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대기업이 찾아오는 도시이며 평균 나이 40.3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송악면은 이렇게 젊고 활력이 넘치는 아산시 내 17개 행정구역 가운데 면적 대비 인구수가 가장 적은 농촌마을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시설의 노후화 등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을이자 학원, 주민센터, 도서관 등이 하나도 없는 교육 문화 복지의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송악면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기반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교육 문화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치며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농촌마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및 복지를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마을로 확장되는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며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송악면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다 같이 즐기는  
**아산시 송악면**





## ‘마을이 학교다’ 마을 교육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농촌마을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송악면은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를 주민들의 힘으로 살리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다양한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지금은 송악면 3개 학교 모두가 혁신 학교로 지정된, 충남에서 유일한 혁신교육지구 마을입니다. 2개 학교 120여 명에 불과했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0여 년 사이, 360여 명으로 늘었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 젊은 농촌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송악면의 힘은 네트워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간 ‘해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2018년 6개이던 사회적 경제조직은 2020년 현재에는 총 14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네트워크의 증가는 꾸준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동아리와 교육, 돌봄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웃 간의 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송악면은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역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내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마을 로컬 장터 ‘송악농장’을 개최하였습니다. ‘송악농장’은 지역주민의 나눔과 소통의 장이자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수요개비장과 고량이랑 장터 등으로 발전시켜 마을에 꼭 필요한 온라인 기반 온·오프라인 플랫폼 장터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는 법이죠  
온 마을이 학교가 되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주민이 행복해요

”



## 아산시 송악면, 이것이 궁금해요!



Q

송악면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A

마을 공간 '해유'는 주민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중 "마을언니에게 배우자"라는 프로그램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모토 아래, 지역 내의 다양한 예술가, 장인, 어르신들을 마을 교사로 발굴하여 지역 내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인적 자원이 되어 10여 년 이어온 배움은 이제 마을의 자산이 되어 마을 인생학교, 작업장 학교로 발전되며 지역 내 다양한 배움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동아리 활동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이사 홍승미

Q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업 전에는 마을 내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주민 간 정보 교류나 소통도 활발해지며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농촌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통합 돌봄 네트워크·마을 조사단을 구성하여 살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농촌마을 주민 주도형 마을 통합 돌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송악면 특성을 반영한 통합 돌봄 체계, 송악면 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산시 전체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송악면 역촌1리 이장 윤광덕



## 사업성과

### 1. 지역 인구 증가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명)	4,285	4,319	4,338	4,355	4,286

### 2. 송악마을공동체 수

연도	2018	2019	2020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6	10	14
마을동아리 수	6	12	15

### 3. 송악마을공간 해유 운영실적

연도	2018	2019	2020
프로그램 수	50	80	47
참여자 수	200	15,435	12,110
놀이·예술제 참여자 수	980	1,440	코로나로 취소

### 4. 일자리 창출 수(송악 마을공간 해유)

연도	2018	2019	2020
고용인원(명)	1	3	9

### 5. 연계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마을통합돌봄 플랫폼구축사업	60	2020~2021	아산시	• 마을 통합돌봄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임팩트 사업	15	2020	행안부	• 지역 현안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시행
사회적 취약계층 학교 협동조합 경영지원사업	45	2019	아산시	•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5	2019	충청남도	• 송악면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365일 흥(興) 나는 지역 공동체,

# 흥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선**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북 고창군 흥덕면**

전국 최초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 지구로 선정된 고창군 흥덕면은 고창군 북부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서 문화·복지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 진행으로 배후 마을까지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고창군 흥덕면'을 소개합니다**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74



**주요사업**

H/W : 흥덕문화복지관(헬스장, 시니어스클럽,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 다목적강당), 중심가로정비사업, 그린케어학습장

S/W : 문화미식회 운영, 잘한다자란다 청소년 교실, 행복꾸러미 사업 등



**주변시설**

흥덕면 복지회관(작은목욕탕, 주민자치센터), 고창 북부권체육관, 흥덕농공단지, 흥덕초등학교, 흥덕중학교, 고창 북고등학교



**지역개발 성공 비법**

- 지역사회 협업 활성화
- 배후 마을 중심지 서비스 전달 체계 활성화
- 활동형 주민공동체 구축





흥덕면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선운산 IC가 위치하고 있는 고창군 및 선운사의 관문으로 인근 대도시 및 읍·면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타 농촌 지역에 비해 청·장년층 비율이 높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상업·행정·문화·교육 등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고창군 북부권 지역(흥덕·성내·부안·신림)의 생활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전국 최초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촌 중심지의 문화 복지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흥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신규 사업 선정 이후, 2020년 준공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는 운영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흥덕문화 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문화시설 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중심가로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상권도 활성화되었으며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 흥덕면 내 대규모 산업 단지과 초·중고 교육 기관, 일터·배움터·나눔터가 활력 있게 어우러지고 배후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 구축을 통해 농촌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확충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주민들이 모여  
곶노래가 절로 나는  
**고창군 흥덕면**





## 지역사회 협업 활성화

사업 준공 이후, 위원장 혹은 사무장 1인 중심의 운영 시스템이 아닌 사업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위원회, 면민회, 체육회, 귀농·귀촌 협의회 등 각 기관 단체들과 협업으로 사업 관리·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MOU 협정을 통해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 가온누리 작은도서관 등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배후 마을 중심지 서비스 전달 체계 활성화

사업 초기부터 흥덕면과 북부권 4개 지역 배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접근이 어려운 배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홍보 및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주민 문화 인턴들이 41개 행정리를 직접 방문하고 홍보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배후 마을 주민들의 참여율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활동형 주민공동체 구축

마을법인 주식회사 하모니 설립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운영으로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수익금은 시설의 관리·운영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잉여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사업 추진 경험, 관리·운영 방식의 공유는 타지역 주민 및 관계자의 방문을 유도하여 흥덕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파급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

배후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농촌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확충했어요

”

## 고창군 흥덕면, 이것이 궁금해요!



Q

중심지 거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A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흥덕문화복지관의 운영에 집중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이나 프로그램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다양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전에는 운동, 문화 활동을 위해 고창읍이나 정읍시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헬스장과 시니어스 클럽 등의 운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배후 마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들이 어울려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재

Q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사업 준공 즈음이 되면, 주민 조직들로부터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는데 흥덕면은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과 사업 관리·운영을 정착화 시키면서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이름처럼 흥(興)이 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단일 사업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부처와의 연계 가능성, 지역사회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며 정말 많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계별로 성장하는 흥덕면의 사례가 타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광수



## 사업성과

### 1. 외부 유입인구 증가(견학 및 교육을 위한 타 지역 방문객 유입)

연도	2017	2018	2019(시범운영)	2020	2021(07월)
방문객수(명)	-	-	185	160	152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2021년도 방문 연기 및 취소

### 2.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연도	2015	2020
생활여건 만족도(만족)	14.7%	52.3%
문화복지 여건 만족도(만족)	29.4%	88.7%

### 3. 배후마을 주민 참여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헬스장 유료회원	-	-	-	-	58.7%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	-	-	-	46%

### 4.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정규직 고용인원(명)	-	-	-	2	3
비정규직 고용인원(명)	-	-	-	8	9

### 5. 연계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관기관	주요사업내용
예쁜 간판꾸미기 공모사업	300	2021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리 환경 개선 및 흥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li> <li>스토리텔링 연계형 관광활성화</li> </ul>
치일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500	2020~2022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기반확충</li> <li>지역역량강화사업</li> </ul>



“ 희망을 심어가는 문화복지 공동체,

#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입선

## 농촌지역개발사업

## 경북 성주군 벽진면

기본적인 문화시설이 전무하던 마을에  
문화센터 하나가 불러온 소통과 이해의 바람  
서로 다른 의견을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회복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 '성주군 벽진면'을 소개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성주로 2473



## 주요사업

H/W : 벽진면 문화센터(1 층 535 m<sup>2</sup>, 2 층 420 m<sup>2</sup>, 총 955 m<sup>2</sup>)

1 층 : 헬스장(119 m<sup>2</sup>), 건강관리실, 샤워장(66 m<sup>2</sup>), 휴게실  
2 층 : 회의실, 취미교실, 탁구장

S/W : 지역역량 강화 주민교육 및 훈련, 동아리활동, 전문가 초청



## 주변시설

벽진면복지회관, 벽진면행정복지센터, 벽진시장,  
벽진초등학교



## 지역개발 성공 비법

-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 벽진면 문화센터 자체적 유지관리
- 지역사회 환원 활동





‘참외’하면 떠오르는 고장, 경상북도 성주군의 벽진면은 소재지 내에 300가구, 1,050명이 살고 있으며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참외를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닐 하우스에서 참외농사를 짓고 있어서 성주는 어디를 가나 비닐하우스가 펼쳐진 ‘비닐하우스의 바다’입니다. 벽진면 또한 참외 외에는 마을에 별로 알릴 만한 자원이 없을뿐더러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건강 시설, 목욕탕,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 여가를 누릴만한 문화·복지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전무하고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벽진면은 성주군에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신청을 결심하고 예비 단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애쓴 결과 2011년 사업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선정이라는 기쁨도 잠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나뉘며 갈등과 반목이 깊어졌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견학하고 이를 토대로 만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투표를 실시하여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소통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벽진면의 발전을 위해 주민 모두가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비닐 하우스마다  
노란 참외가 익어가는  
**성주군 벽진면**





##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벽진면은 우수사례 견학 대상지로서 매년 30개 지역 타 시·군에서 농촌만들기 사업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문화공동체 활성화(탁구동아리, 바둑교실, 요가, 캘리그라피, 한자공예교실 등)와 별미농악단 연습 및 공연장으로 이용하며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벽진 문화센터 자체적 유지관리

아무리 좋은 시설도 스스로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문화센터의 자체적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증설로 문화센터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관리비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탁구, 댄스 스포츠, 요가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과 헬스장 및 샤워장의 회원제 운영으로 자체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환원 활동

벽진면 면소재지활성화사업 운영 위원회는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환원이라는 생각으로 무료 이용권을 나눠주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문화센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샤워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매달 넷째 주 화요일에는 '작은 영화관'을 통해 영화도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수익의 창출보다 소득의 환원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구슬이 서 말이어도  
꺾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주민 스스로 문화센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을의  
진정한 힘이에요

”



## 성주군 벽진면, 이것이 궁금해요!



Q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A

벽진문화센터는 1층 헬스장, 샤워시설, 휴게실 및 건강관리실, 2층 탁구장, 취미교실, 회의실 구성으로 신축되었습니다.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헬스장은 관내 퍼스널 트레이너의 재능기부로 강의를 진행되고 있으며 캘리그라피, 한지공예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든 탁구, 요가, 바둑, 다도동아리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샤워시설이 있어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명절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개방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샤워를 제공하며 지역 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용관

Q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2012년부터 벽진면소재지종합정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추진 위원회에서는 당면한 어려움과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벽진면의 사례가 타지역의 사업 추진과 진행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고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용관

## 사업성과

### 1. 지역 인구 증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변화율
성주군(명)	46,846	46,323	45,713	43,414	44,603	-0.96%
벽진면(명)	3,264	3,268	3,157	3,071	3,043	-1.36%

출처 : 주민등록통계(2017~2021 4분기).

### 2. 벽진문화센터 선진지견학 방문실적

연도	2016	2017	2018	2019
방문지역	36	29	41	33
방문객수(명)	1,006	766	1,143	822
수입(천원)	10,060	7,660	11,430	8,220

### 3. 벽진문화센터 일자리 창출 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정규직 고용인원(명)	2	2	2	2

# 에필로그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가 2021년 9월 9일 개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한 이번 콘테스트는 전국 1,994개 농촌 마을에서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25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 차분하고도 열정적인 콘테스트 준비 현장

지난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온라인으로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올해에는 예년처럼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잔치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8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는 한차례 연기되고, 장소도 변경되는 우여곡절 속에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사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분한 준비 속에서도 발표를 맡은 마을 대표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농촌 만들기’ 2개 분야 10개 팀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마을 만들기’ 3개 분야 15개 팀은 호텔인터시티에서 열정적인 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순위 발표와 시상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보고 느끼고 배우는 가능성의 현장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참석 인원을 제한해 각 마을과 지역 대표자가 참석하여 발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작은 규모로 치러지는 행사였지만 발표 현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맘껏 응원하지 못하는 마을과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창의 열띤 응원 댓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로 단상에 오른 마을 대표들의 긴장하시는 모습이나 기쁨의 눈물을 보이며 달려 나오는 수상자의 모습에서는 마을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노력했을 모두의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전국 농촌 마을들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모든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그간의 노고와 결실을 다독이고 축하하며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잔치입니다. 온라인 진행의 아쉬움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더 많은 분들이 본 행사를 함께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발전을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떠들썩한 재미와 행복이 가득한 행복농촌 만들기 축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빛을 나누고, 같이 웃고, 삶을 부대끼는 모두의 행복 에너지가 농촌 마을의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이 되는, 모든 농촌마을의 봄날을 기대합니다.

# 마을만들기 분야



# 농촌만들기 분야



2021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 함께 만드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TEL. 044)201-1560~1

발행일 | 202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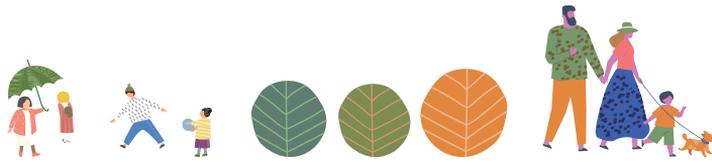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https://www.raise.go.kr/contest>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021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2021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비매품/무료

03060



9 791186 183434  
ISBN 979-11-86183-43-4